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중학생의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의 차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 혜 인

2014년 8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중학생의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의 차이

지도교수 김 성 봉

고 혜 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고혜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국문초록>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중학생의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의 차이

고 혜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강화자, 방관자, 방어자)에 따라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중학생의 공감은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자아분화는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중학생의 가족체계는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내에 소재한 남녀공학 중학교 세 곳, 2학년 학생 665명을 유의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래 괴롭힘 관련 경험의 전반적 양상과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 18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검증, t검증, 일원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중학생의 약 75%는 또래 괴롭힘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래 괴롭힘 목격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는데, 남학생은 신체적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관계적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경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은 남녀 모두 방관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방어자 역할은 남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감은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능력 하위영역인 관점취하기, 동일시,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공감은 공감능력 하위 영역인 동일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방어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방관자와 강화자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동일시에서는 방관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어자, 강화자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분화는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따른 자아분화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술통계로 평균은 높았으나 정서적 단절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인 인지대 정서,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에서 모두 방어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방관자, 강화자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체계는 하위 영역인 적응성에서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가족응집성, 가족체계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적응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변또래역할에서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유형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가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학생들의 또래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가족체계 및 심리적 역동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 중학생들의 또래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도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연구가설	7
4. 용어의 정의	8
가. 또래 괴롭힘	8
나. 주변또래역할	8
다. 공감	8
라. 자아분화	8
마. 가족체계	9
II. 이론적 배경	10
1. 또래 괴롭힘	10
가. 또래 괴롭힘의 개념	10
나. 또래 괴롭힘의 특성	11
다. 또래 괴롭힘의 성별 및 나의 차이	12
2. 주변또래역할	13
가. 주변또래역할의 개념	13
나. 주변또래역할과 관련된 선행연구	15
3. 공감	17
가. 공감	17
나. 공감관련 선행연구	18
4. 자아분화	20
가. 자아분화의 개념	20
나. 자아분화의 하위구성개념	22
다. 자아분화의 특성	24
라. 자아분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25

5. 가족체계	26
가. 가족체계이론	26
나. 가족응집성	28
다. 가족적응성	32
라. 가족체계유형	34
마. 가족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	35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7
1. 연구대상	37
2. 연구절차	39
3. 연구도구	39
가. 공감	39
나. 자아분화	41
다. 가족체계	43
라. 또래 괴롭힘에서 주변또래역할	46
4. 자료의 분석	47
IV. 결과 및 해석	48
1. 또래 괴롭힘 관련 경험과 주변또래역할 양상	48
2.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공감의 차이분석	51
가.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	51
나.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공감의 차이	53
3.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분석	56
가.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	56
나.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	58
4.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가족체계의 차이분석	61
가. 성별에 따른 가족체계의 차이	62
나.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가족체계의 차이	64
V. 논의 및 결론	67

참고문헌	73
<Abstract>	81
부록목차	84

표 목 차

표 II-1.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 유형	14
표 II-2. 가족 응집성 지표	30
표 II-3. 가족 적응성 지표	33
표 II-4. FACES III에 의한 집단분류구분	35
표 III-1. 연구대상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38
표 III-2. 공감 하위영역 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40
표 III-3. 자아분화 하위 영역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42
표 III-4. FACES III의 하위 영역과 문항 및 신뢰도	44
표 III-5.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문항 설명	46
표 IV-1.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 양상	49
표 IV-2. 또래 괴롭힘 관련 경험	50
표 IV-3.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	51
표 IV-4.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공감의 차이	53
표 IV-5.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공감의 다중비교	54
표 IV-6.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	56
표 IV-7.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	58
표 IV-8.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자아분화의 다중비교	59
표 IV-9. 연구대상자의 가족체계 평균·표준편차	61
표 IV-10. 연구대상자 가족체계 집단분류별 분포	61
표 IV-11. 성별에 따른 가족체계의 차이	63
표 IV-12.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가족체계의 차이	64
표 IV-13.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가족체계의 다중비교	65

그림 목차

그림 IV-1. 성별에 따른 공감 하위영역의 차이	52
그림 IV-2.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공감 하위영역의 차이	55
그림 IV-3.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 하위영역의 차이	57
그림 IV-4.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자아분화 하위영역의 차이	60
그림 IV-5. 연구대상자 가족체계 집단분류별 분포	6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00여명의 실종자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슬픔과 허탈함에 빠져있는 이 와중에도 북한은 NLL 해상사격훈련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때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북한보다 더 무서운 이들을 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중학교 2학년들 자녀와 학생으로 둔 학부모와 교사들이다.

실제 현장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 인터뷰에서, ‘중 1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때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히고, 중 3은 해도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할 줄 알지만 중 2는 학교에 적응도 됐고, 입시에 대한 부담감도 적고, 중학교 기간은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더 막무가내로 행동한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후 교사의 훈계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라며 막무가내로 대드는 일이 다반사다.’, ‘반항심과 충동성은 더욱 더 증가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중학교 2학년은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는 등의 내용들이 보고되고 있다(EBS 다큐프라임, 2014. 3. 3.).

누리꾼 사이에서 이미 “중 2병(중학교 2학년 나이 또래의 사춘기 청소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빗댄 언어로, 자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은 남과 다르다’ 혹은 ‘남보다 우월하다’ 등의 착각에 빠져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알잡아 일컫는 인터넷 속어)” 이란 용어가 나돌고 있으며,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때문이다"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3)을 통해 실시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 주요결과에서도 11년~13년 사이 학교폭력 실태는 감소하였지만,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폭력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4,5,6학년)과 고등학생(1,2학년)에 보다 중학생들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폭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

며, 능동적으로 자아를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중학교 2학년은 인생의 골든타임으로 뇌에서 생애 두 번째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시기이기에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시냅스(두 신경세포 사이나 신경세포와 분비세포, 근육세포 사이에서 전기적 신경충격을 전달하는 부위)를 남기고, 필요 없는 시냅스는 제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좋은 교육, 양육이 제공되면 뇌구조의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신이 주신 두 번째 양육의 시기",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즉, 이 시기를 놓치면 위기가 되고, 잡으면 선물이 되는 것이다(EBS 다큐프라임, 2014. 3. 3.).

중학교 시기의 또래관계는 청소년기 정체성 확립과 심리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최근 또래 간의 괴롭힘으로 인해 청소년의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래 괴롭힘은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청소년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문제행동을 일으켜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등교공포, 등교거부, 학교활동의 기피 및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피해학생들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그 휴유증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행동과 학교부적응의 행동이 나타나고 일반학생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경향이 높다(이은희, 2009; 이익섭, 최정아, 2008).

또래 괴롭힘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 급은 중학교이지만 가해 학생들의 관계는 이미 초등학교 때 형성된 친구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이경아, 정현희, 1999; 정옥분 등, 2008). 중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또래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려고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또래 괴롭힘을 일으킬 수 있다(Pellegrini & Bartini, 2000). 이처럼 중학교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자신이 속한 또래 내에서 우월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학생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래 괴롭힘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는 우울, 불안, 학업부진,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괴롭힘 목격자에게는 불안, 무기력, 두려움 및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그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대인불안, 우울, 분노 및 자기 파괴적 충동을 경험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한 자살시도 가능성도 있다(송경희, 2010; 이은경, 2011).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경험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장기적으로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입을 때, 뇌 발달의 이상이 예측된다고 하였으며, 또래 괴롭힘의 경험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이는 성인의 정신 병리적 증상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idal et al., 2007). 즉, 중학교 시기는 심리·정서적 발달의 중요한 시기이며, 사회적 뇌 발달의 민감기에 해당하며, 또래 괴롭힘 발생 후 학교나 부모의 개입을 통해서 피해자의 사회 정서발달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또래 괴롭힘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생한 이후에는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를 낮추기 위해 보호요인이 필요하다.

또래 괴롭힘은 다수의 참여자가 개입하는 집단적 맥락에서 주로 발생하며 지속된다(서미정, 2006). 이러한 맥락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래 괴롭힘이 주변에 또래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주변에 있는 다수의 또래들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고, 몇몇 또래들은 누가 먼저 괴롭힘을 주도하면 동참하기도 하며,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또래 괴롭힘을 말리려고 노력하는 또래들도 있다(윤성우, 2004; 차윤희, 2005).

또래 괴롭힘이 힘의 불균형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Olweus, 1993),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들의 다양한 개입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이 대등하다면, 주변또래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을 하며, 묵묵히 지켜보거나 괴롭힘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방관하는 또래가 피해자를 돕거나, 괴롭힘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가해행동이 감소가 될 수도 있다.

즉,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이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 또래 역할을 중심으로 집단 내 보호 요인의 기제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래 괴롭힘의 유형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 유형이 성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관적이지 않다. 서미정(2006)과 임재연

(2013)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주변또래역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하였으며, 심희옥(2008), 송경희, 이승연(2010), 오인수(2010)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주변또래역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또래 괴롭힘의 발생률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괴롭힘을 많이 하지만, 여학생은 간접적이고, 관계적인 괴롭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은주, 2001; Olweus, 1993). 이는 남학생의 경우 힘을 과시하려는 기제와 여학생의 경우 배타적 우정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제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문용린, 최지영, 백수현, 김영주, 2007).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성별에 따라 주변또래역할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주변또래역할에 차이가 있는지와 성별에 따라 또래 괴롭힘 관련 변인에 차이가 있을 지 알아보려고 한다.

주변또래가 도움행동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적절한 인식과 피해자의 감정을 유사한 방식으로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 필요하다. 공감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반응을 유발하는 개인내적 특성이며, 또래 집단 내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공감능력은 개인의 성격이나 지속적인 성향으로 보기도 하고 한 과정 또는 결과로 정의되기도 한다(박성희, 2004). 공감능력이 발달할수록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감정을 이해할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채고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태도는 긍정적인 사회화에 꼭 필요한 과정이며(Mary gorden, 2010),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으며(Redmond, 1989), 대인관계에서 활용되는 정서지능에서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Charbonneau & Nicol, 2002).

중학교 시기는 발달상 특징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중학생들은 이전보다 독립심과 자율성의 욕구가 높아져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부모와의 관계가 가족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중학생들은 자의식이 강해지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어른과 또래의 지지가 없으면 몹시 불안해지기 쉽다. 따라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수용 받고, 공감 받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의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타인에 대한 예측력을

증가시킴으로 사회적 적응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공감능력은 심리적 변인과 가족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심리적 변인 중 하나인 자아분화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며 중학생의 발달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객관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 신념과 생활원리를 따르며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김정택, 심혜숙, 1992). 즉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적 충동을 참을 수 있는 자제력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 상황적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공감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의 조절은 시간과 상황, 타인에 대한 배려나 여유와 관련이 있으므로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전체 공감능력이 높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연희(2008)는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관용적이며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 자아분화와 공감능력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감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이 속해있는 가족적인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은 공감능력이 처음 뿌리를 내리는 곳이며, 가정에서 발달된 공감능력은 아이에게 안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신감과 뚜렷한 자기 감각을 심어주어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도록 해주기 때문이다(Mary Gordon, 2010). 신뢰관계의 기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성되며 청소년들은 가족 안에서 안정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감정을 느끼며 정서적 유대를 돈독히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감능력을 배우게 된다(고경애, 2007). 즉, 가족이 적절히 기능하고 가족원이 기능적인 행동으로 건강한 가족 경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에게 바람직한 자율성과 독립성,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처럼 공감능력과 관련되는 가족 특성으로는 가족체계를 들 수 있는데, 가족체계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데 가족원들 간의 유대가 균형적으로 잘 형성된 가족 안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잘 파악하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가족 응집성의 발달은 개인의 정서 발달과 관련이 높으며 정서적 공감 능력과도 밀접하다. 이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할

수록 즉, 가족 응집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을 정서적 측면에서 더 잘 공감할 수 있다고 밝힌 이민수(2000)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 내의 의사결정권, 역할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이 변화에 대해 적절한 융통성을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발달한다. 어머니가 융통적일수록 자녀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 노명희, 박상희(2002)의 연구를 통해 높은 가족 적응성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심리적 특성인 자아분화와 가족 특성인 가족체계가 중학생들의 공감수준에 영향을 줄 것이며, 높은 공감수준을 가진 청소년들은 주변상황에 잘 적응하며 삶의 여러 장면들에 있어 의식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에게 주변 또래 역할에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의 주변또래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으며,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방어자들의 높은 공감능력, 높은 자존감, 높은 자기 효능감, 사회적 자기 효능감 및 방어행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좋은 정서 조절능력, 낮은 도덕적 이탈수준, 좋은 마음읽기능력, 좋은 사회적 기술, 높은 인기도와 선호도, 그리고 또래 괴롭힘에 반대하고 방어행동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지각된 학급 규준이 있었다(김연화, 한세영, 2011; 김은아, 이승연, 2011; 류경희, 2006; 송경희, 이승연, 2010; 심희옥, 2005; 오인수, 2010). 그러나 이런 특정 역할유형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방식은 또래 괴롭힘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데 한계점이 있어서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을 하는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의 특성과 차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또래 괴롭힘 양상과 잠재적 참여자인 주변또래역할의 특성을 살펴보고, 성별과 주변또래역할(강화자, 방관자, 방어자)에 따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또래들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개인 심리적 변인인 공감과 가족 심리 역동적 변인인 자아분화와 가족체계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에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근거로 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공감은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강화자, 방관자, 방어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자아분화는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강화자, 방관자, 방어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중학생의 가족체계는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강화자, 방관자, 방어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연구가설

가설 1-1. 중학생의 공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중학생의 공감은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중학생의 자아분화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중학생의 자아분화는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중학생의 가족체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중학생의 가족체계는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또래 괴롭힘

본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은 고의적으로 밀거나 때리거나 등의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괴롭힘, 또래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관계적 괴롭힘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나. 주변또래역할

본 연구에서 주변또래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 잠재적으로 참여하는 제 3의 인물을 의미하며, 그 역할에 따라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로 구분한다. 강화자(reinforcer)는 또래 괴롭힘 상황을 구경하고 가해자의 괴롭힘 행동에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이며, 방관자(outsider)는 괴롭힘 상황을 피하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역할이고, 방어자(defender)는 피해자를 가해행동으로부터 방어하고 괴롭힘 행동을 중단하고자 하는 역할로 조작적 정의한다.

다. 공감

본 연구에서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인 차원으로 구성되며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경험이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위영역에는 ‘관점 취하기’와 ‘동일시’가 있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불행이나 감정에 대해 정서적 반응으로, 하위영역에는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있다.

라. 자아분화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란 개인의 정신내적 측면에서 인지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대인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시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자아분화의 하위요소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으로 구성되어있다.

마. 가족체계

본 연구에서 가족체계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유형을 말한다.

가족응집성은 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연결과 분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응답자가 지각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한다.

가족적응성은 가족 구성원이 처하게 되는 상황적 및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역할, 규칙, 권력구조 등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또는 관계의 융통성으로 정의한다.

가족체계유형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또래 괴롭힘

가. 또래 괴롭힘의 개념

또래 괴롭힘(bullying)의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르게 정의된다. Smith(1991)는 괴롭힘을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Galloway(1994)는 ‘한 명 혹은 집단이 다른 학생 또는 집단에 고의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서미정(2006)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약한 학생에게 신체, 언어 및 심리적 형태의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 심희옥(2007)은 어떤 집단 안에서 특정인을 소외시킴으로서 괴롭히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Olweus(1991)는 또래 괴롭힘이란 ‘또래들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부정적 행동(negative action)’은 직접적인 폭력(능동적 공격 : 구타, 폭행)과 간접적인 폭력(수동적 공격 : 소외, 심리적 배제)이 모두 포함된다(곽금주, 1999). MacIken(2003)은 부정적인 행동을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공격행동으로 분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괴롭힘은 때리기, 발로차기, 밀기, 물건을 빼앗기 등의 행동을 포함하며 언어적 괴롭힘은 놀리기, 욕하기, 위협하기, 말로 가로막기 등의 행동을 포함하고, 사회적 괴롭힘은 소문을 퍼뜨리기, 따돌리기, 혹은 관계를 조작하는 행동과 같이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이다(오인수, 2009). 학교 현장에서는 또래 괴롭힘과 비슷한 용어로 왕따, 학교폭력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을 두 명 이상의 학생이 집단을 이루어 자기보다 약한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언어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나. 또래 괴롭힘의 특성

Olwe(1993)는 또래 괴롭힘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말하였는데, 하나는 행위의 반복성이며, 다른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이다. 즉, 또래 괴롭힘은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가해자가 특정 피해자를 지목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해자, 피해자, 이를 지켜보는 주변 또래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가해자, 피해자의 심리적인 개인 특성 변인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하였지만,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집단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래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라고 한다면 또래 괴롭힘은 그 특성상 집단적이고, 집단 내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반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상황을 목격했을 것이며, 알고 있다는 사실(Salmivalli, 1992)은 그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이 또래 괴롭힘 상황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O'Connell, Pepler & Briag, 1997)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최근 연구자들은 또래 괴롭힘 연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성 변인, 갈등 뿐 만 아니라 주변인의 특성 변인과 그들의 심리적인 역동관계를 함께 연구하려고 하고 있다.

또래 괴롭힘이 상황에서 참여역할을 살펴보면, 가해자, 피해자 뿐 만 아니라 주변 또래(bystander)가 존재하는 데, Salmivalli와 Voeten(2004)는 직·간접적 형태의 괴롭힘을 주도하는 가해자,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가해자를 따르면서 가해행동에 참여하지만 주도하지 않는 조력자, 가해행동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강화자,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가해행동을 말리려고 노력하는 피해방어자, 그리고 또래 괴롭힘을 보고도 모른 채하거나 가만히 보고만 있는 방관자 등 6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서미정(2008)은 조력자와 강화자의 역할 간 유사성이 높게 나타나 조력자와 강화자를 한 개의 집단인 강화자로 보고,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방어자를 포함하여 5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미정(2008)의 연구를 토대로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의 참여역할유형을 가해자, 피해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로 보고, 이 중 주변또래역할에 해당하는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들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 또래 괴롭힘과 성별 및 나이 차이

또래 괴롭힘의 유형, 참여역할 유형과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관적이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또래 괴롭힘의 발생률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또래 괴롭힘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남아에게서는 직접적인 괴롭힘이 많이 나타나고, 여아에게서는 간접적인 괴롭힘이 많이 보고된다. 여아들은 직접적인 공격의 또래 괴롭힘 보다는 사회적인 고립이다. 또래들로부터 고의적인 배척 형태로 나타나는 간접적인 또래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된다. 그러나 남아인 경우 간접적인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도 여아들과 같은 정도로 나타나지만, 직접적인 또래 괴롭힘에 노출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Bjorkqvist와 Lagerspetz, Kaukiainen(1992)도 괴롭힘의 하위 유형을 직·간접적인 것으로 나누었는데, 여아들의 괴롭힘은 관찰되기 어려운 간접적인 형태라는 이유로 간과되어 왔지만 여아들은 간접적이고 교묘한 형태의 공격을 더 많이 표출하고, 남아들은 직접적인 공격을 더 많이 표출한다고 하였다. Smilth와 Sharp(1994)는 괴롭힘을 신체적(예: 때리기, 차기, 소유물을 빼앗거나 손상시키기), 언어적(예 : 헐뜯하기, 모욕하기, 놀리기), 간접적(예 :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기)인 괴롭힘으로 하위유형을 나누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남아들은 신체적 형태의 또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여아는 언어적 형태의 또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접적인 또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정(200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방관자가 많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방어자가 많은 것으로 기술통계상으로 나타났으나 χ^2 검증에 의하면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나타났다. 임재연(2013)의 연구에서도 강화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적었고, 방관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여학생이 관계성에 민감하여 방관은 많고 강화는 적은 것으로 분석하였지만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주변또래역할에서 성차가 유의미함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 심희옥(2008)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방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경희, 이승연(2010)의 연구에서도 정의적 공감은 남녀 학생 모두의 방어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남학생은 정의적 공감만 방어행동을 예측하였다. 또한 오인수(2010)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의적 공감에 따라 주변인의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여학생은 인지적, 정의적 공감이 높을수록 방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남학생은 정의적 공감만이 방어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변또래역할 유형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주변또래역할 유형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주변또래를 위한 또래 괴롭힘 예방프로그램이나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할 때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자들은 나이에 따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역할 유형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는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다(서미정, 2008; 신나민, 2012; 심희옥, 2008; 오지원, 2013; 임재연,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또래 괴롭힘의 유형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의 분포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주변또래역할

가. 주변또래역할의 개념

최근 또래 괴롭힘에 관한 연구들이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역할을 하는 주변또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주변또래(bystander)란 괴롭힘 상황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을 말한다(오인수, 2010).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에 대한 세분화 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주된 관심을 두었으나, 연구가 진행될수록 또래 괴롭힘 현상이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양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래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뿐 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주변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Hawker & Boulton, 2000 ; & Dodge, 1998; Cowie & Tennifer, 2008 재인용)알려졌다. 피해여부를 떠나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신체화, 강박, 대인관계 민감성, 우울, 불안 등 여러 정신건강요소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므로(Rivers et al., 2009) 또래 괴롭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뿐 만 아니라 그 주변의 또래들 즉, 맥락 내 전체 구성원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래 괴롭힘을 학급 내 대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집단 맥락적 현상으로 간주한 연구자들(윤성우, 2004; 차윤희, 2005; Samivalli et al., 1996, Samivalli & Voten, 2004; Sutton & Smith, 1999)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주변또래들의 개입행동을 기준으로 동조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로 분류하였다. 그 중 동조자와 강화자의 역할 간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동조자와 강화자는 가해동조로 묶어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였다(Sutton & Smith, 1999).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 행동에 초점을 두어 아래 표에서 주변인에 해당하는 괴롭힘 행동에 웃거나 구경꾼이 되는 강화자, 괴롭힘을 보고도 모른 척 하거나 무관심한 방관자, 피해자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가해행동을 말리려는 방어자로 역할행동을 분류하여 차이를 보려고 한다.

표 II-1.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 유형

참여자 (Participant)	주변인 (bystander)	강화자 (reinforcer)	괴롭힘 행동에 웃거나 구경하는 사람
		방관자 (outsider)	괴롭힘을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한 사람
		방어자 (defender)	피해자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가해행동을 말리는 사람
	가해자(bullies)		적극적, 주도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피해자(victims)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Skinner(1953)의 강화원리에 따르면 또래 괴롭힘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주변에 있는 또래들의 반응은 가해행동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방관자는 또래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하거나 피해자를 지지하려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또래 괴롭힘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거나 가만히 보고만 있는 방관자적 태도로 가해행동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을 하여 가해행동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강화자는 가해자를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심리사회적 보상이 되어 가해행동에 대한 적극적 강화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행히도 가해자와 피해자 주변에 피해자를 지지하거나 위로하고, 가해행동을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또래들이 있는데(박혜경, 2000; 차윤희, 2005), 이들을 방어자라고 한다. 이들은 가해자에게 보복의 두려움을 갖게 하여 처벌자로서 기능하며, 가해행동의 감소에 기여하게 된다(윤성우, 2005; O'Connell, Pepler & Craig, 1999; Salmivalli, 1999).

이와 같이 또래 괴롭힘을 강화하는 행동들은 주변또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또래 괴롭힘 강화행동은 또래 괴롭힘을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변또래역할 양상 및 주변또래역할에 영향을 주는 개인 심리적 변인과 가족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주변또래역할과 관련된 선행연구

또래 괴롭힘 방어, 방관행동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행한다는 결과(류경희, 2006), 방어행동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방관행동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결과(Pozzoli, & Gini 2010)와 방관행동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방어행동에서 남학생이 더 많이 한다는 결과(백지현, 2010)도 있어 강화, 방관, 방어행동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비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성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방어자와 방관자는 조력자나 강화자처럼 가해자를 지지하지 않으며 공격적인 행동에 연류되지 않는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친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방어자는 갖고 있지만 방관자는 갖고 있지 않는 특징을 찾아 방관자가 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또래 괴롭힘 방어, 방관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방어자들의 높은 공감능력, 높은 자존감, 높은 자기 효능감, 사회적 자기 효능감 및 방어행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좋은 정서 조절능력, 낮은 도덕적 이탈수준, 좋은 마음읽기능력, 좋은 사회적 기술, 높은 인기도와 선호도, 그리고 또래 괴롭힘에 반대하고 방어행동을 지지하는 것에 대

한 지각된 학급 규준이 있다(김연화, 한세영, 2011; 김은아, 이승연, 2011; 류경희, 2006; 송경희, 이승연, 2010; 심희옥, 2005; 오인수, 2010).

반면 방관행동과 관련해서는 좋은 공감능력, 낮은 사회적 자기효능감, 부적응적 문제해결전략, 낮은 사회적 수용 및 거부, 중간정도의 사회적 지위 등을 들고 있어 방어행동과 같이 일방향이적이지 않으며 연구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다(Gini et al., 2008, Pozzoli & Gini, 2010; Salmivalli et al. 1996).

또래 괴롭힘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방관자라는 제 3의 관련 대상을 가져오기에 더 근절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즉,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또래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 학생의 또래 친구들은 피해 학생과 어울리게 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까봐, 또는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될까봐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태도를 보인다(손갑주, 2005).

또래 괴롭힘 참여역할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almivalli등(1996)의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대상의 약 87%가, Sutton과 Smith(1999)에서는 84.5%가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 중 하나의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서미정(200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참여 유형에 따른 비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주변 또래 중 방관자의 비율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피해 방어자의 비율은 34.6%, 가해동조자는 6.4%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방관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중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백지현(2010)의 연구에서는 84.5%가 또래 괴롭힘 상황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경아(2011)의 연구에서는 피해방어 집단이 26.8%, 방관집단이 20.6%, 피해집단 14.7%, 가해집단 12.7%, 가해동조집단 10.6%로 전체의 85.3%가 또래 괴롭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다수 학생들이 또래 괴롭힘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심희옥(200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되고,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이외의 주변인의 역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또래 괴롭힘에 대한 개입이 가해자나 피해자에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공감

가. 공감

중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들 중에서 선행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공감(송경희 외, 2009)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리학에서 처음 공감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Lipps(1903)이다. 그는 미학심리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미학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이를 추구하는 자아라고 하면서 공감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후 실험심리학 분야와 여러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공감의 개념이 다루어지다가 1950년대 Rogers에 의해 공감이 강조되면서 공감에 대한 연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공감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연구되어왔고 공감의 개념도 연구자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초기에는 공감의 인지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입장과 정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입장이 공존하면서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Redmond, 1989) 차츰 Hoffman(1977)이나 Davis(1980)등이 인지적, 정서적 관점을 통합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연구하였고, 이런 통합적 관점에 대해 현재 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공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감이 정서적 요소나 인지적 요소 등과 같이 어느 한 쪽의 요소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

통합적 관점은 공감이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Feshbach, 1976; Hoffman, 1977; Davis, 1980, 1983).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요소란 역할수용, 관점수용능력을 포함하는 것인데 타인의 생각, 감정, 상황을 정확히 알고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as if) 느끼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요소는 공감에 의한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즉,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 공유, 정서적 공명과 대상과 일치하는 감정은 아니지만 부정적 상황에 있는 상대방을 보고 동정, 관심,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통합적 관점에서 Davis(1994)는 공감을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 상상하기(fantasy),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의 네 가지 하위차원을 가진 개념으로서 정의하였고, 이 중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 요소에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요소에 속한다고 하였으

며,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공감에 대한 조작적 측정도구인 대인관계반응지수 (IRR ;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제작하였다.

공감능력은 인간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고, 다양한 문제 예를 들면 스트레스 대처와 갈등해결에 기여한다(Kohut, 1959, Greeson, 1960).

Carkhuff(1969)는 공감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고 내가 이 사람이면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할 것인지를 생각하여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공감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인상을 형성하며, 타인이 원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부감이나 방어가 감소되면 친밀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Gordon(1979)은 공감은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강한 욕구불만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도록 기능하기 때문에 갈등 해소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나. 공감관련 선행연구

공감은 여러 가지 친사회적인 행동인 협동성, 사회성, 대인관계, 이타행동과 매우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Batson & Coke, Miller & Eisenberg, 1988). 공감이란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감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기능으로써 Kreh(1975)는 타인에 대한 공감정도에 따라 도움행동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Hoffman(1982)은 자신의 공감발달이론에서 '무의식적, 자발적인 정서반응으로서의 공감은 역할수용, 관점수용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쳐 보다 성숙한 공감능력으로 발달한다'(신경일, 1994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즉, 타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관찰할 때 자신도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공감적 고통(empathic distress)은 타인의 역할과 입장을 이해하는 역할 수용능력과 관점수용능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보다 성숙한 형태인 동정적 고통(sympathetic distress)의 형태로 변화되고, 이로 인해 타인에 대한 관심, 연민 또는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을 종합하며 공감은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 상황을 인지하고 타인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거나 타인의 상황에 대해 더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공감이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촉진작용을 하며 갈등해소에 도움을 주고 관계를 강화시키며(Guerny, 1977) 친사회적 행동의 원천이 되는(Hoffman, 1982) 등 대인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 존중감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며(박혜원, 2002) 비행과 문제행동을 예방하는(한명수, 2000; 이영희, 2005) 등 인성의 변화와 자기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높은 공감능력은 또래 괴롭힘의 동조 현상을 억제시키는 주요변인이 될 수 있으며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이희경, 2001). 이희경(2001)의 연구에서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친한 관계에서 괴롭힘 당한 아이에게 더 도움 행동을 많이 보이며,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괴롭힘 당한 학생이 자신과 친하든 친하지 않던 도움 의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공감능력을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두 변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를 통해 알아본 곽은정(1998)의 연구에서 두 요소 간에 높은 상관성이 밝혀졌으며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개인적 고통을 제외한 관점수용, 정서적 공감, 공감적 관심의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대인관계 요소 중 자기노출과 공감반응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공감능력과 성차와의 관련성을 본 연구들은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여자가 공감능력이 더 높다는 결론이 많지만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으며 공감의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는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연령에 따라 성차의 양상이 바뀌기도 한다.

공감에 성차가 있다고 보고 있는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능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이경주, 2002; Davis, 1983).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여성의 경우는 거세불안이 없기 때문에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자아와 초자아의 발달이 약하며 이 결과 남성보다 더 감정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남을 돌보고 인간관계 지향적이라는 일반적 믿음 때문에 공감은 여성의 속성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이경주, 2002).

청소년기는 또래관계가 급속히 확장되는 시기로,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감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배은경, 2011). 청소년은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또래관계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문제행동,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갖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격성에 대한 조절기능이나 또래관계, 문제행동, 자아개념들에 대한 연관성이 유의미하게 드러나고 있다.

4. 자아분화

가. 자아분화개념

가족체계이론에서 말하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란 가족의 감정덩어리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과정이며 이를 분화라고 한다. 분화란 감정을 지적체계에 의해서 얼마나 잘 통제하고 지배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가족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신을 독립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윤정연, 2000).

자아분화(differentiation)는 Bowen(1982)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장기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융(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 또는 자기실현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제석봉, 1989).

개인의 자아분화는 개인의 내면 및 타인과의 관계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개인의 정신 내적 개념으로서 분화란 사고와 느낌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인간관계 차원의 개념으로서 분화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켜 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자아분화는 한 개인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가족으로부터 잘 분화하는 것은 일생의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이미숙, 2005). 특히 가족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사춘기에 접어드는 13-15세 정도의 중학생 시기는 자신에 대한 지각과 통제력을 갖추어 나가는 시기이자 부모로부터 분리되며 주변 환경에 독립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 때 자아분화는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발달적 개념이다(정정연, 2007).

Bowen(1982)은 개인이 자아분화, 즉 정서적 분리를 성취하는 정도에서 개인차가 있는데, 그 차이는 그의 부모가 원가족으로부터 분화를 달성한 정도와 그 자신이 부모, 형제, 기타 가까운 친척과 가지는 관계의 특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분화된 사람은 독립적으로 사고하며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다. 또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미분화된 사람은 독립적으로 명확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자신과 타인을 융해(fuse)시키고자 한다.

자아분화가 되지 못한 사람은 진아(solid self) 즉, 자기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구성된 자주적·독립적이고 융통성 있고 일관된 자아가 발달하지 못하고 거짓자아(pseudo self) 즉, 타인의 정서적 압력에 따라 변하는 자아가 발달된다. 이러한 사람은 자주적·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쉽게 동조하며,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공격이나 비난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삶을 산다. 반대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타인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타인과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목표 지향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산다(Bowen, 1982).

Bowen의 이론에 따르면 정서와 사고와의 융합이 심할수록,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융합을 이룰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는 개인의 사고와 감정 사이에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와 타인의 관계에서도 분화가 결여되어 정서적으로 반응하기 쉬우며,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는 말이다(한정아, 2005).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정서적 반응성과 나 위치,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의 4가지 특징을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아분화가 잘 되지 못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반응한다.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지적 과정을 구별하지 못하며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한다.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풍부한 정서와 자발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정서적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자제력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Bowen, 1976).

둘째, 분화는 나 위치(I-Position)를 취하는 능력을 반영하는데, 분화가 잘 되지 못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좀 더 자기내부로 향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고 안정된 자신감을 가진다(Bowen, 1978).

셋째, 분화가 잘 되지 못한 사람은 내부적 경험이나 대인관계에서 너무 격렬하다.

그들은 자신의 격렬한 감정만큼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기도 한다.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정서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으며,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Nichols & Schwatz, 2001).

넷째, 분화가 잘 되지 못한 사람은 대체로 타인과 융합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를 단아 버린다(Kerr & Bowen, 1988).

나. 자아분화의 하위구성개념

Bowen(1976)은 낮은 부모의 자아분화가 자녀의 자아분화에 손상을 끼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아분화 하위 차원 구성개념으로 자아분화, 삼각화, 핵가족 정서체계, 가족투사과정, 다세대 전달과정, 자녀 위치, 정서적 단절, 사회적 퇴행 등의 8가지 구성요인을 제시했다. 제석봉(1989)은 Bowen이 제시한 이 8가지 자아분화 구성 개념 중 중복된 개념을 제외하여 5가지 구성개념을 추출하였다.

1)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내적 분화

개인의 정서적 체계에서 지적 체계가 분화된 정도를 기준으로 자아분화를 측정하는 하위 차원이다. 정서적 체계란 희로애락의 일반적인 감정과 생물학적 본능을 동시에 포함한 개념이다. 자아융합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감정에 의지하게 되며 타인의 감정에 의존적이 된다. 이 상태에서는 관계 유지를 위하여 에너지를 소모하고 감정과 정서적 충족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자기 신념과 의견이 형성되면 자아융합 상태에서 자아분화로 진척이 일어난다. 높은 분화상태에서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면서 원칙 및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게 된다. 관계를 중시하며 타인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유지해 나간다. 또한,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윤정연, 2000).

2) 자아 통합

Bowen(1978)은 자아를 진짜자아(solid-self)와 가짜자아(pseudo-self)로 구분하였다. 진짜자아는 자신의 명확한 신념, 견해, 확신 및 생활 원리를 바탕으로 하므로 큰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 의한 영

향을 덜 받게 된다 (김경복, 2005). 반면, 가짜자아는 위장된 자아이다.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변한다. 따라서 사회적 압력이나 자극에 따라 유동적이고 타협적이게 된다 (Hollander, 1983). 이 관점에서의 자아분화란 가짜 자아로부터 진짜자아가 발달되고 분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족투사과정

성숙하지 못하고 개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들의 미성숙과 미분리화를 전달한다고 보는 것이 가족투사과정 차원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족상호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Bowen, 1976). 자아가 잘 분화되지 않은 부모의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이나 배우자 일방에 게서의 역기능적 증상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문제를 특정 자녀에게 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투사과정이 심하게 되면 개인의 자아분화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 따라서, 투사의 양이 자아분화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4) 정서적 단절

정서적 단절은 부모 애착에 대한 강한 부정, 고립 등의 정신내적 기제사용,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의 욕구 표현, 위장된 독립성 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미분화된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처리해 가는 과정을 정서적 단절로 규정한다.

미분화 상태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충동적인 결혼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애착의 정도가 심할수록 자아분화가 어렵게 되고, 부모나 자신의 과거로부터 단절되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해지게 된다(김경복, 2005).

5) 가족퇴행

가족퇴행은 다양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가족구성원들의 퇴행적 행동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낮은 자아분화수준의 가족에서는 부모의 자아분화수준이 낮게 나타나며, 지적체계와 정서적 체계 간의 미분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폭력, 책임회피, 권리만 주장, 가족구성원 간의 동질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 등의 퇴행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쉽다(윤선미, 2010). 가족퇴행은 구

성원 개개인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미분화 수준을 증대뿐 아니라 사회적 퇴행으로 까지 확대되게 된다.

다. 자아분화의 특성

자아분화는 이분법적 또는 결정적 개념이 아니라 연속적인 개념으로서 한 개인이 평생을 통해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윤선미, 2010), 개인의 분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0에서 100까지 이루어진 분화척도(scale of differentiation of self)를 사용하기도 한다. 완전 분화(100)는 이상적인 상태로써 일반인들이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정택, 심혜숙(1992)은 자아분화수준이 특징을 (1) 아주 낮은 사람(0-25), (2) 대체로 낮은 사람(25-50), (3) 보통사람(50-75), (4) 높은 사람(75이상)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자아분화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의 특징은 자아융합(ego fusion)의 정도가 아주 심하여 주위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에 예민하며 의존적이다. 또한 긴장이나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부적응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쉽사리 타인의 정서에 함몰되며 그러한 관계가 와해되면 불안해한다. 자아분화수준이 비교적 낮은 사람은 융합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자아정체감이 분명하지 않다.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면 견지하고 있던 의견과 신념을 굽히고 타인의 영향에 쉽게 굴복한다. 자아분화수준이 보통인 사람은 자아융합정도가 아주 낮고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이며 목표 지향적이고 관계체계를 중요시한다.

자아분화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타인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도 자신의 정체감을 잃지 않으며 자신과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일관성 있게 나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신념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다.

Bowen은 자아분화수준의 개념이 정서질환이나 정신 병리를 재는 기준은 아니며 또한 분화수준이 성숙수준과 동일한 개념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때문에 분화수준이 낮아도 스트레스가 없고 가족 간의 균형이 유지된다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도 심각한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면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차이점은, 낮은 사람일수록 동질화(togetherness)세력이 사고와 활동을 지배하고 가짜자아(pseudo-self)가 발달되어 자주적 삶을 살기보다 타인의 인정과 상황이 주는 압력과 긴장에 쉽게 영향을 받아 대인관계에서 융합이 일어나기 쉽다(김정택, 심혜숙, 1992). 반면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 가운데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상태로부터 확고한 신념과 개성을 가지고 타인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고, 정서적 친밀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독립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라. 자아분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자아분화의 심리적 부적응 및 대인관계를 밝힌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혜숙과 정경연(2007)의 연구에서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이 낮게 나타나며, 아동의 문제행동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자아분화는 또래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남정미(2006)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고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친구, 가치관, 장래 학업과 같은 등의 문제에 좀 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인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냉담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여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효율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배미예(2008)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원칙 지향적 목표 지향적 삶을 살며, 타인의 가치와 신념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자기 가치와 신념을 견지해 나감으로써 자기 통제력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개인이 나타내는 모든 부적응 증상이나 행동은 자아가 분화되지 못해서 기인한다(박혜선, 2011). Garginkel은 그의 1980년 연구에서 청소년의 역기능적이거나 병리적인 행동은 전체가족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이며 가족 역동성과 정신내적 증상이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박유화, 2001).

아직은 가족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초등학교 아동의 성격발달과 함께 내재화, 외현화된 행동문제들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역동성에 많이 좌우될

것이다. 정서적 건강 수준이 높은 출생 가족은 자녀가 적응적이고 능력있는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Lewis, Beavers, Gossett, & Phillios, 1976),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적응력이 우수하여 다방면에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다(Lewis et al., 1976). 특히 청년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간에 갈등이 심할 때 부적응 행동을 많이 나타냈으며, 출생가족과의 통제와 융합이 심할수록 불안이 증대되었다(이신숙, 차용은, 2000). 자신의 가족기능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이 그렇지 못한 대학생보다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권미영, 1993).

자아통합을 제외한 자아분화수준이 낮아질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권미영, 1993)와 자아분화도가 높은 청소년이 비행이나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이 덜 나타난다는 연구(Starr, 1981)결과로 미루어볼 때 자아분화수준이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는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낫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정경연, 심혜숙, 2007; 최소영, 2007).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정서보다는 문제 중심으로 상황에 대처한다(백옥현, 홍상욱, 2008; 최연실, 김현영, 2005).

따라서 자아분화는 개인의 부적응 증상과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가족체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사춘기에 접어들어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는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자신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독립적으로 목표지향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발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5. 가족체계

가. 가족체계이론

1940년대 체계이론(system theory)이 대두되면서 개인중심이 아니라 개인이 성장하고 자라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관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일반체계이론에 영향을 받은 가족체계이론은 가족을 사회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동시에 하나

의 사회체계, 또는 기능적인 단위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어떤 기간과 공간 속에서 조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기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각 요소들보다 그들의 상호작용과 전체의 기능을 중시해야 한다고 한다(Hoffman, 1984). 즉 가족체계는 개방된 체계로서 사회 환경과 끊임 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하위체계인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체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계 내에는 가족규칙이 있다. 가족 내에는 규칙이 존재하며, 가족구성원은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가족원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규칙은 조직화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칙을 알게 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를 규정짓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둘째, Minuchin(1974)은 가족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하위체계들은 가족 구성원 각자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같은 2인 가족 관계이며 이러한 각각의 하위 체계들이 특정한 위계를 이루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전체로서 유지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하위체계들이 매우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족 체계가 다른 체계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와 가족 속에서 존재할 때는 서로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

셋째, 가족체계에는 경계가 존재한다. 경계는 가족 하위체계들 간의 가장자리로서 의사거래에 있어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일종의 규칙이다.

넷째, 가족체계는 항상성과 변화라는 원리에 의해 작용한다(Bloch & Laperrire, 1973). 가족체계의 항상성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에 의한 변화를 시도하는 체계에 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체계의 성향을 의미한다. 즉 가족 체계가 외부 자극으로 인해 평형상태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 일탈을 통제하여 체계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조절·회복하려는 작용이다.

가족체계이론가들은 이러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양한 용어로 기술했다. 그러나 Olson 등(1983)에 의해 가족체계의 정서적 차원을 가리키는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과 가족이 가족 내·외부의 긴장에 대응하여 가족체계를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가족 적응성(family adaptability) 두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은 가족성원간의 상호의존성 또는 심리적 유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족 체계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이다(Smets and Hartup, 1988; 이소연, 2003, 재인용). 가족은 가족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며 이들 구성원들은 각기 가족 내 하나의 요소들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해 나가면서 가족이라는 체계를 이루어 나간다. 즉, 구조 내에서 구성원들의 각기 독특한 속성들이 모여 단위를 이루고 전체로서 기능한다.

Olson과 그의 동료들(1995)은 가족응집성을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연결과 분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전귀연(1993)은 가족이 기능수행은 가족성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성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 정도, 가족 내 역할, 규칙, 힘 등의 체계 아래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체계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가족의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오락 및 취미활동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며 가족성원 각자의 친구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등의 가족응집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가족이 생활하면서 상황적으로 처하게 되는 긴장이나 위기에 대한 저항력이 내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어 가족이나 가족성원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기능적인 가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Bowen(1965)은 개인의 자아가 가족으로부터 분화되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으면 개인의 자주적, 독립적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숙과 자기실현을 위해서 가족과의 미해결된 감정적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분화된 가족 자아 덩어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Minuchin등(1976)은 전체로서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체계들 간의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밀착 과잉분리 연속체(enmeshed disengaged)'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연속체의 한쪽 끝에는 밀접하게 상호 연결된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밀착가족, 즉 응집성이 높고, 반대쪽 끝에는 가족소속감이나 단결감이 거의 없는 과잉분리가족 즉 응집성이 낮다고 하였다.

가족응집성의 중간수준의 가족이 가장 기능적이라는 곡선적(curvilinear) 가정을 설정하였고, 이 가정을 Circumplex Model(복합순환모델)이라고 하였다(이상길, 2004).

복합순환모델에 따르면 가족응집성이란 가족성원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정서적인 유대감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거리감을 느낀다면 가족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응집성이 적당히 낮은 가족은 분리된 가족이며, 응집성이 적당히 높은 가족은 연결된 가족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가족체계수준에서만 가족이 효과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개인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리되거나 속박된 가족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부족, 그리고 지나친 간섭과 밀착으로 인해 역기능적 가족이 된다(Olson, 2000).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은 가족응집력이란 가족 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이며 가족의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8가지 하위 변인들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ing), 가족 외부환경과 하위체계들 간의 경계(boundaries), 지지가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coalitions),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사적인 시간의 허용정도(time), 가족의 공동친구와 개인사적 친구의 인정(friends), 의사결정 유형(decision making), 가족의 전체 오락 활동과 개인의 활동보장의 정도(interests recreation)에 따라 그 차원을 결정하였다. 가족응집성 차원은 연결·분리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응집이 지나치게 낮은 과잉 분리(disengaged), 적당히 낮은 분리(separated), 적당히 높은 연결(connected), 응집이 지나치게 높은 밀착(erumeshed)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 4가지 차원에 입각하여 8가지 하위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Olson et al., 1979)는 표 II-2와 같다.

표 II-2. 가족응집성 지표

수준 변인	이탈	분리	연결	밀착
정서적 유대	매우 낮음	낮음-중간	중간-높음	매우 높음
가족의 경계	외부경계:개방적 내부경계:폐쇄적 세대간경계:경직	외부경계:반개방적 내부경계:반개방적 세대간경계:명확	외부경계:반개방적 내부경계:반개방적 세대간경계:명확	외부경계:폐쇄적 내부경계:폐쇄적 세대간경계:혼란
연합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약함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명확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 명확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 강함
시간	홀로 보내는 시간 : 최다 함께 보내는 시간 : 거의 없음	홀로 보내는 시간과 함께 보내는 시간 : 모두 중요시	홀로 보내는 시간 : 중요시 함께 보내는 시간 : 합당한 이유면, 개인 시간 허용	홀로 보내는 시간 : 최다 함께 보내는 시간 : 거의 없음
공간	사적 공간 : 최다 가족과의 공간 : 거의 없음	사적 공간 : 많음 가족과의 공간 : 적음	사적 공간 : 적음 가족과의 공간 : 많음	사적 공간 : 없음 가족과의 공간 : 최다
친구	개인친구 : 많음 가족친구 : 없음	개인친구, 가족친구 : 둘다 있음	개인친구, 가족친구 : 둘다 있음	개인친구 : 거의 없음 가족친구 : 없음
의사결정	항상 각자 결정	대부분 각자 결정, 가족문제는 함께 결정	대부분 가족과 함께 결정	항상 가족과 함께 결정
흥미와 오락	주로 개별활동	자발적 가족활동, 개별활동지지	가족활동, 개별활동에 관심보임	대부분의 활동은 가족과 함께 함

(Olson et al., 1979)

Minuchin, Rossman, Baker(1978)는 과잉 밀착된 가족 간의 강한 소속감은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경험을 지배하여 가족과 분리된 자아의식의 발달을 저해하고, 구성원 중의 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일은 가족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하위체계간이 경계가 미분화되고 약하며 쉽게 뒤바뀔 뿐 만 아니라 지나친 일체감과 공유감 때문에 개인적 자유도 없다고 하였다. 반면, 과잉 분리된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함으로써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가족들이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족응집성은 부모가 애정과 지지를 보여 줌으로써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개입을 하는 것을 내포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자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발달은 부모가 제공하는 양적, 질적인 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Otto and Atkinson, 1997; Amato and Rivera, 1999; McNeal 1999; 송미경, 2010 재인용).

Gold and Yanof 등은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Olson등은 이러한 응집성이야말로 타인과 신체적, 정서적, 지적으로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배양시킨다고 하였다(Roming and Bakken, 1991). 그러므로 가족응집성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공감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응집성은 두 가지 요소, 즉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연결된 정도와 가족체계 내에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자율성의 정도(안경숙, 2006)로 이루어지므로 자아분화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가족응집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5개의 하위 영역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Olson, 1985; 정희준, 1995; 이소연, 2003; 안경숙, 2006, 재인용).

- ① 정서적 결속감(emotional bonding) : 가족구성원 서로에게 느끼는 친밀감 및 가족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② 도움과 의논(supportiveness) :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일을 다른 가족과 논의하는 것
- ③ 가족원간의 경계(family boundaries)유지 : 외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보다 가족구성원들과 잘 지내는 것과 가족의 일에만 관심있는 것
- ④ 여가시간 및 친구공유(time and friends) : 가족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의 친구를 받아들이는 것

- ⑤ 활동의 공유와 행사참여(interests and recreation) :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 있으면 꼭 참석하고, 가족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다. 가족적응성

가족적응성은 가족구성원들에게 부여된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정도를 말하며, 가족의 변화를 허용하는 정도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김민경, 2003).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은 가족적응성이란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단계상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가족성원들이 가족체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가족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6가지 하위영역의 개념으로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유형(assertiveness), 통제 유형(control),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 유형(role relationships), 가족규칙의 명확성 및 융통성(rules)이다. 하위영역들에 의해 측정되는 가족의 적응성은 변화 능력의 정도에 따라, 높은 점수부터 혼돈된 상태(chaotic), 융통적인 상태(flexible), 구조화된 상태(structured), 경직된 상태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4가지 수준에 입각하여 6가지 하위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는 표와 같다.

Cirumplex Model에서 가족적응성은 직선적인 관계이기보다는 곡선적인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가족 적응성의 수준이 매우 낮거나, 높은 '경직된 가족', '혼돈된 가족'은 역기능적인 가족이고, 그 수준이 적당한 '구조적 가족'이나 '융통적 가족'일 때 가족의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Olson et al, 1983; 정연호, 2004, 재인용).

박지영(1995)은 가족적응성을 '가족이 규칙을 세워서 유지하고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하였으며 가족의 변화에 반응하는 융통성 정도, 가족의 지도력, 권력, 훈육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Beaver 등(1986, 1990)은 가족기능의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 역량을 '부정적 혼돈의 연속체'로 정의하였는데, 한쪽 끝에는 가장 융통성이 없고 미분화되고 비효율적인 체계를 두어 가족 기능의 수준에 따라 심한 역기능적 가족, 약간 역기

능적 가족, 최상의 가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Olson 등(1979,1983)은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체계는 적응성이 있다고 기본가정을 두었다. 이에 근거하여 가족적응성을 가족구성원이 상황적 과정과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에서의 규칙, 역할,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표 II-3. 가족적응성 지표

수준 변인	혼돈	융통적	구조적	경직
주장	수동적, 공격적 유형	일반적으로 단호히 주장	일반적으로 단호히 주장	수동적 공격적 유형
통제	리더쉽 없음	동등한 리더쉽	민주주의적 리더쉽	권위주의적 리더쉽
훈육	방임형, 매우 관대	민주주의적	민주주의적	권위주의적, 매우 엄격
협상	무한정이 협상, 문제해결능력 빈약	좋은 협상, 문제해결능력 좋음	구조적 협상, 문제해결능력 좋음	제한적 협상, 문제해결능력 빈약
역할	역할의 극적인 변화	역할확립 및 역할 분담, 역할의 자연스러운 변화	역할분담	경직된 역할 : 스트레오 타입의 역할
규칙	규칙의 극적인 변화, 함축적인 규칙이 많음, 명시적인 규칙이 거의 없음. 규칙을 마음대로 적용시킴	규칙의 변화가능. 함축적인 규칙이 더 많음. 때때로 규칙 강요	규칙변화 거의 없음. 함축적인 규칙보다 명시적인 규칙이 더 많음	경직된 규칙. 명시적인 규칙은 적응.엄격하게 규칙준수 요구

(Olson et al., 1979)

따라서 적응성(adaptability)이란 '가족체계가 상황이나 발달 단계의 요구에 따라 그 자신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이소연, 2003), 가족적응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구체적인 하위개념을 다음과 같다.

- ① 지도력(leadership) : 가족 내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만이 담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도 가능성도 인정하는 정도
- ② 통제(control): 자녀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인정하는 정도
- ③ 훈육(discipline): 부모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훈육에 대해 자녀들이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 ④ 역할과 규칙(roles and rules) : 문제해결방식이 다양하고, 집안일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며, 가족 규칙의 변화를 인정하는 정도

위 4가지 하위 영역들에 의해 가족적응성이 측정되고 그 정도에 따라 경직(rigid), 구조(structured), 융통(flexible), 혼돈(chaotic)의 4가지 집단으로 구분된다.

라. 가족체계유형

Olson의 복합모델(Circumplex model : OCM)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로 외부세계에 대한 가족 경계선과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평가하는 가족응집성 요인과 상황적 혹은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인 가족적응성 요인에 의해서 구성된다. 가족응집성 요인은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연결의 4가지 집단으로 구분되며, 가족적응성 요인은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인 4가지 집단으로 구분된다. 그것을 기초로 각각의 4가지 집단을 조합하여 16가지 가족체계로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16가지 유형으로 연구하기 어려우므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모두 양극단에 속하는 네 가지 유형(매우융통/과잉분리, 매우 융통/매우연결, 경직/과잉분리, 경직/매우융통)의 가족은 극단 가족, 한 요인은 극단이지만 다른 요인은 중간에 위치하는 여덟 가지 유형(매우 융통/분리, 매우 융통/연결, 경직/분리, 경직/연결, 구조적인/과잉분리, 융통적인/과잉분리, 구조적

인/매우연결, 융통적인/매우 연결)의 가족은 중간범위 가족으로, 그리고 두 요인 모두 중간에 속하는 네 가지 유형(분리/구조적, 분리/융통적, 연결/구조적, 연결/융통적)의 가족은 균형가족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거나, FACES 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의 점수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 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 가족으로 분류하여 연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Olson, et, al., 1992).

표 II-4. FACES III에 의한 집단분류구분

구분	집단분류			
가족응집성수준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연결
가족적응성수준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
가족체계유형	극단	중간	약간균형	균형
분류방법	최하점수 ~(M-SD)	(M-SD)~M	M~(M+SD)	(M+SD) ~최상점수

※ M: 평균, SD: 표준편차

마. 가족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

지금까지 공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간접적이지만 대인관계와 가족체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문행(1994)의 연구에서는 기능적인 가족의 자녀는 대인관계에 있어 독립-책임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성향이 강한 반면 반항-불신적 성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홍현화(1997)의 연구에서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전반 즉 학교환경, 학교수업, 학교친구, 학교생활에 있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주연(2005)의 연구에서도 가족 간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 질의 긍정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nggeler, Edward, Chone 및 Summervills(1992)은 또래 집단에서 아동의 인기도와 다른 가족 관계의 측정치(부부 적응, 가족 적응성, 응집력)을 평가하였는데, 이런 측정치들은 학령기에 또래

지위의 변화를 예견한다고 보았고,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가족 관계 속의 아동은 또래지위가 향상되는 반면, 갈등적인 가정은 시간에 걸쳐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또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인 중 하나는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또래 관계에서 발달적 변화나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의 역할유형은 단지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고, 맥락의 변화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가족의 응집력과 친밀감, 가족 간의 상호작용 방식과 분위기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주변또래역할에서 보호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선정, 연구절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 연구도구,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의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가 성별 및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 8,173명, 남녀공학 중학교 30곳(제주교육통계연보, 2013 기준) 중 3곳에서 중학교 2학년 800명을 유의 표집 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800부 중 수거한 설문지는 750부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69부를 제외하고 총 681부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과정 중 결측으로 인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16부 자료를 추가로 제외하고, 66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14.2세이며, 성별은 남학생이 333명(50.1%), 여학생이 332명(49.9%)으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형제 수는 1명인 경우가 366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 수가 2명이 180명(27.1%), 외동이 58명(8.7%), 3명이 51명(7.7%), 4명 이상이 7명(1.1%)이었다. 가족유형은 양부모가 있는 가정이 559명(84.1%)으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 가정인 96명(14.4%), 조손 또는 친척과 사는 학생은 9명(1.4%)이었다.

학생들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424명(63.8%)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잘사는 편이 141명(21.2%), 다소 어려운 편이 68명(10.2%), 매우 잘사는 편이 23명(3.5%), 매우 어려운 편이 4명(0.6%)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졸업이 256명(38.5%)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161명(24.2%), 2년제 대학졸업이 48명(7.2%), 대학원 이상이 44명(6.6%), 중학교 졸업이 8명(1.2%),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5명(0.8%)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졸업이 204명(30.7%)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169명(25.4%), 2년제 대학졸업이 85명(12.8%), 대학원 이상이 45명(6.8%), 중학교 졸업이 22명(3.3%),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명(0.2%)이었다. 대상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그들이 지각한 경제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중류층에 속해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I-1. 연구대상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N=665)

변수	구분	명(%)
성별	남	333(50.1%)
	여	332(49.9%)
형제수	외동	58(8.7%)
	1명	366(55%)
	2명	180(27.1%)
	3명	51(7.7%)
	4명이상	7(1.1%)
	무응답	3(0.5%)
가족유형	양부모	559(84.1%)
	한부모	96(14.4%)
	조부모, 친척	9(1.4%)
	무응답	1(0.2%)
경제수준	매우 어려운 편	4(0.6%)
	다소 어려운 편	68(10.2%)
	보통	424(64.8%)
	약간 잘 사는 편	141(21.2%)
	매우 잘 사는 편	23(3.5%)
	무응답	4(0.7%)
아버지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이하	5(0.8%)
	중학교 졸업	8(1.2%)
	고등학교 졸업	161(24.2%)
	2년제 대학 졸업	48(7.2%)
	4년제 대학 졸업	256(38.5%)
	대학원 이상	44(6.6%)
	무응답	143(21.5%)
어머니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이하	1(0.2%)
	중학교 졸업	22(3.3%)
	고등학교 졸업	169(25.4%)
	2년제 대학 졸업	85(12.8%)
	4년제 대학 졸업	204(30.7%)
	대학원 이상	45(6.8%)
	무응답	139(20.9%)

2. 연구절차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3월 17일부터 2014년 3월 21일까지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 또래 괴롭힘 상황에 대한 전반적 양상 및 주변또래역할, 인구통계학적 질문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학년부장 선생님과 담임선생님들께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질문지의 기재방법을 설명한 후 배부하였다. 수거한 질문지 750부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한 69부와 결측으로 인해 분석이 불가능한 16부를 제외한 총 66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가. 공감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대인관계적 반응 지수(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김지은(2012)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감은 크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뉘며, 인지적 공감 하위영역에는 '관점 취하기', '동일시', 정서적 공감 하위 영역에는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이 포함된다. 각 영역은 7문항 씩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 로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8문항으로 총점의 범위는 28-140점이며, 4개의 하위 영역 당 점수의 범위는 7-35점이다. 전체 문항 중에서 부정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9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공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관점 취하기 .827, 동일시 .836, 공감적 관심 .831, 개인적 고통 .845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834로, 공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안정적으로(Gliem & Gliem, 2003)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공감 척도의 하위 영역과 그에 따라 분류한 문항번호, 그리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신뢰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공감 하위 영역 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신뢰도
인지적 공감	관점취하기	3*,8,11,15*,21,25,28 .827
	동일시	1,5,7*,12*,16,23,26 .836
		.834
정서적 공감	공감적 관심	2,4*,9,14*,18,20,22 .831
	개인적 고통	6,10,13*,17,19*,24,27 .845

주. *는 부정형 질문으로 역산한 문항을 표시한 것임

(1) 관점 취하기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에 관한 문항으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나는 가끔 내 친구들의 처지에서 상상해보고,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등이 있다. 관점 취하기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고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동일시

동일시(fantasy)에 관한 문항으로는 ‘나는 종종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멍하게 생각에 잠기거나 공상에 빠진다’, ‘나는 소설 속 등장 인물의 감정에 잘 빠져든다’ 등이 있다. 동시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상 상황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공감적 관심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에 관한 문항으로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든다’, ‘나는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이 있다. 공감적 관심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불행에 대해 염려하고 연민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4) 개인적 고통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에 관한 문항으로는 ‘나는 위급한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개인적 고통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았을 때 느끼는 불안이나 불편한 감정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나. 자아분화

개인의 자아분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분화가 역기능적 행동 및 정신내적 적응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이 검사지는 총 36개 문항으로 5개 하위 척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은 ‘인지 대 정서’,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이 포함된다.

자아분화 하위변인에 대한 문항은 표 3과 같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그렇다’가 3점, ‘매우 그렇다’가 4점으로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36문항으로 총점의 범위는 36-144점이다. 전체 문항 중에서 부정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다고 해석한다.

제석봉이 도구 개발 시 남녀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중 1개교씩 선정하여 총 371명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측정도구의 Cronbach'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자아분화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16이었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인지대 정서기능 .830, 자아통합 .836, 가족투사과정 .829, 정서적 단절 .827, 가족퇴행 .809로 자아분화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안정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분화 척도의 하위 영역과 그에 따라 분류한 문항번호, 그리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신뢰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자아분화 하위 영역 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인지대 정서	1*,2*,3,4*,5*,6*,7*	7	.830
자아통합	8,9,10,11*,12*,13	6	.836
가족투사과정	14*,15*,16*,17*,18*,19*	6	.829
정서적 단절	20,21*,22*,23*,24*,25*	6	.827
가족퇴행	26,27,28,29,30,31,32,33*,34*,35*,36*	11	.809

주. *는 부정형 질문으로 역산한 문항을 표시한 것임

(1) 인지대 정서기능

사려성과 자기감정의 통제능력 등의 분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과 충동성, 합리화, 약물남용과 같은 불안 경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융합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자아통합

개인이 관계체제 또는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가족투사과정

어릴 때부터 투사의 가능성이 높은 자녀 간의 의사 거래 유형과 투사하기 쉬운 자녀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근심 등의 부모의 특질을 묻는 문항과 과거에서부터 부모가 표명했던 근심과 현재 상태의 일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투사과정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심한 투사를 받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정서적 단절

부모에 대해 애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이나 고립 등의 정신 내적 기제의 사용, 부모에 대한 반항, 가족의 욕구를 통한 정서적 거리, 위장된 독립성 등을 재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단절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정서적 단절이 심한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긴장과 문제를 부모 탓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5) 가족퇴행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 성원들이 여기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 가족 성원들 간의 갈등처리 방법이나 폭력 등의 유무,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행위,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가족 성원들의 동질화 추구 경향, 가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삼자의 삼각화 경향, 가정 바깥에서의 성문제 기타 가족성원간의 역기능적 의사거래 유형 등 가족 성원들의 퇴행적 행동을 짚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퇴행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것은 가정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퇴행적 행동의 빈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가족체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지각한 가족체계 즉,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Olson, Portner와 Lavee가 1985년에 제작한 FACES 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를 한상분(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FACES III는 가족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FACES 척도에 관한 시리즈 중 세 번째 것으로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총 20문항 중 홀수에 속하는 10문항은 가족응집성을 측정하며 짝수에 속하는 10문항은 가족적응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따라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전체 점수의 범위는 응집성과 적응성 두 차원 각각에서 최저 10점에서부터 최고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이 높다.

FACES III는 원래 곡선적 가설 하에 응집력과 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였으나, 여기 사용된 Likert식 문항들은 실제로 역기능의 직성적인 측정치를 내기 쉽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집력과 적응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효과적이라는 직선적인 가설을 수용하고 있다(김주연, 1997).

국내 연구를 위한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는 전귀연과 최보가(1993,1995),에 의해 검증된 바 있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Cronbach' α의 값이 적응력이 .62-.76, 응집력은 .66-.83을 나타내었다. Olson등의 연구(1985)에서도 FACES III의 가족 응집력과 적응력 요인은 직교하며($r=0.3$) 서로 다른 영역을 측정하고 있고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응집력이 .77, 적응력이 .62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차원의 신뢰도는 가족 응집성 .811, 가족 적응성 .818, 전체 신뢰도 .813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의 차원과 하위영역, 그에 따른 문항번호와 그에 해당하는 신뢰도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FACES III의 하위영역과 문항 및 신뢰도

하위영역	하위영역	문항수	번호	신뢰도
	가족의 정서적 유대	2	11,19	
	가족의 지지	2	1,17	
가족응집성	가족원간의 경계	2	5,7	.811
	가족공동시간과 친구관계	2	3,9	
	가족의 레크레이션에 대한 관심	2	13,15	.813
	가족의 지도록	2	6,18	
가족적응성	가족의 통제	2	2,12	.818
	가족의 훈육	2	4,10	
	가족의 역할과 규칙	4	8,14,16,20	

(1)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 가족지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과 친구관계, 흥미와 여가로 표현되는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관심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유대는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감으로 정서적 결속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지지는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원조와 의사결정의 유형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는 가족 구성원 및 가족 외부 환경과의 교류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과 친구관계는 개인만의 자유시간 정도 및 개인적인 친구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인정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레크리에이션은 가족의 여가활동에의 공동참여 정도와 관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가족적응성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 가족체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의 능력과 의지를 말한다. 응답자가 지각하고 있는 관계의 융통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Olson 등 (1992)에 의해 새롭게 제안된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에 의한 집단분류 방법 및 명명 방법에 의하면 가족 응집성 수준에 따라서 과잉분리집단, 분리집단, 연결된 집단, 매우 연결된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라서는 경직 집단, 구조적 집단, 융통적인 집단, 매우 융통적인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가족체계유형은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의 조합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적인 가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균형적인 가족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이며, 극단가족은 두 측정치가 모두 낮은 가족이다 (맹영임, 2001, 재인용).

라. 또래 괴롭힘에서 주변또래역할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에 대한 설문은 Salmivalli와 동료들(2004)의 참여자 역할 질문지를 바탕으로,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 역할 중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선택하는지를 혹은 선택할지에 대해 생각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단일문항으로 본 연구 부록 IV. 또래 괴롭힘 전반적 양상에 관한 질문지 7번 문항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관련 양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안에 괴롭힘 상황을 목격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게 하였으며, 주변또래역할 유형을 잠재적 참여자 역할로 살펴보기 위해서 또래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적인 없다고 응답한 학생일지라도, 만일 또래 괴롭힘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주변또래역할유형에 따른 문항 설명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문항 설명

문항	설명
강화자	괴롭힘 상황을 보며 웃거나, 주변에서 구경을 한다
주변 또래 역할 방관자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위로해주거나, 다른 애들이 괴롭힘 행동을 그만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방어자	상황을 피하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4. 자료의 분석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중학생의 또래 괴롭힘 관련경험과 주변또래역할 양상, 괴롭힘 상황에 관한 인식과 경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시행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t검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중학생의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Scheffe)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18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또래 괴롭힘 관련 경험의 전반적인 양상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가 성별과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1. 또래 괴롭힘 관련 경험과 주변또래역할 양상

또래 괴롭힘 관련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 χ^2 검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1과 표 IV-2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2학년의 연구대상자 청소년들의 75.3%이상이 또래 괴롭힘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또래 괴롭힘을 목격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또래 괴롭힘 유형 중에서도 신체적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관계적 괴롭힘은 여학생이 더 많이 목격하거나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상황 주변또래역할에 대한 설문에서 방어자 역할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남학생 집단이 높았고, 여학생은 방관자 역할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 목격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몇 번 있음(64%), 전혀 없음(23.7%), 자주 있음(9.3%), 항상 있음(2.7%), 기타(0.3%)순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도 몇 번 있음(65.7%), 전혀 없음(27.7%), 자주 있음(3.9%), 항상 있음(2.1%), 기타(0.3%) 순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괴롭히는 이유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격(남학생: 54%, 여학생 63.7%), 외모(남학생 : 29.1%, 여학생 : 24.1%), 행동(남학생:10.7%, 여학생 : 9.1%), 기타(남학생:5.8%, 여학생:3.0%), 성적(남학생:0.3%, 여학생:0%)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괴롭힘 상황을 목격했을 때 피해학생을 돕겠느냐는 질문에 ‘돕지 않겠다’란 반응에 남학생 67.6%, 여학생 73.5%, ‘돕겠다’란 반응에 남학생 32.4%, 여학생 26.5%로 ‘도움 행동을 하겠다’라고 반응한 학생 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또래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남학생:51.6%, 여학생:73.7%), 그 다음 순으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남학생:19.2%, 여학생 8.8%),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됨'(남학생:12.9%, 여학생:8.5%), '나는 절대 당할리가 없음 '(남학생:2.4%, 여학생:6.3%)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래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언어적(55.4%), 신체적(30.1%), 관계적(9.0%), 기타(5.4%)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44.5%), 언어적(39.05), 기타(12.95), 신체적(3.7%)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타 의견에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관계적 폭력을 모두 한다' 와 '카따(카톡에서 왕따를 줄인 말)',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 북 테러' 등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또래 괴롭힘 상황을 목격했을 때 피해자를 돕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관심 없음(36.0%), 용기 없음(29.2%), 피해우려(22.0%), 도움 방법을 모름(11.9%)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용기 없음(35.0%), 관심 없음(21%), 피해우려(20.65), 도움 방법을 모름(18.7%) 순으로 나타났으며, 돕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은 어떤 유형에 또래인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남학생은 방관자(57.9%), 방어자(28.8%), 강화자(13.8%)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도 방관자(67.8%), 방어자(26.2%), 강화자(6.0%)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방관자의 역할을 하겠다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화자 또는 방어자를 선택하는 빈도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또래역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성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IV-1.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 양상

	남학생 n(%)	여학생 n(%)	전체 n(%)	χ^2 (df)
주변또래역할				
강화자	46(13.8%)	20(6.0%)	66(9.9%)	13.462
방관자	191(57.9%)	225(67.8%)	416(62.6%)	(2)**
방어자	96(28.8%)	87(26.2%)	183(27.5%)	
N(%)	303(49.9%)	304(50.1%)	665(100.0%)	

*p<.05, **p<.01, ***p<.001

표 IV-2. 또래 괴롭힘 관련 경험

	남학생 n(%)	여학생 n(%)	전체 n(%)	χ^2 (df)
또래 괴롭힘 목격 경험				
전혀없음	79(23.7%)	92(27.7%)	171(25.7%)	8.922 (4)
몇 번 있음	213(64.0%)	218(65.7%)	431(64.8%)	
자주있음	31(9.3%)	13(3.9%)	44(6.6%)	
항상있음	9(2.7%)	7(2.1%)	16(2.4%)	
기타	1(0.3%)	2(0.6%)	3(0.5%)	
N(%)	333(100%)	332(100%)	665(100.0%)	
또래 괴롭힘에 대한 생각				
나와 전혀 상관없음	64(19.2%)	29(8.8%)	93(14.0%)	21.664 (4)***
언젠가 당할 수 있는 문제	205(61.6%)	244(73.7%)	449(67.6%)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됨	43(12.9%)	28(8.5%)	71(10.7%)	
나는 절대 당할 리가 없음	8(2.4%)	9(2.7%)	17(2.6%)	
기타	13(3.9%)	21(6.3%)	34(5.1%)	
N(%)	333(100%)	331(100%)	664(100.0%)	
괴롭히는 이유				
외모	95(29.1%)	79(24.1%)	174(26.6%)	8.472 (4)
성격	176(54.0%)	209(63.7%)	385(58.9%)	
행동	35(10.7%)	30(9.1%)	65(9.9%)	
성적	1(0.3%)	0(0.0%)	1(0.2%)	
기타	19(5.8%)	10(3.0%)	29(4.4%)	
N(%)	326(100.0%)	328(100.0%)	654(100.0%)	
또래괴롭힘 유형				
신체적	100(30.1%)	12(3.7%)	112(17.0%)	164.720 (3)***
언어적	184(55.4%)	127(39.0%)	311(47.3%)	
관계적	30(9.0%)	145(44.5%)	175(26.6%)	
기타	18(5.4%)	42(12.9%)	60(9.1%)	
N(%)	332(100.0%)	326(100.0%)	658(100.0%)	
도움행동				
돕지 않는다	225(67.6%)	224(73.5%)	469(70.5%)	2.809 (1)
돕는다	108(32.4%)	88(26.5%)	196(29.5%)	
N(%)	333(50.1%)	332(49.9%)	665(100.0%)	
돕지 않는 이유				
관심없음	85(36.0%)	54(21.0%)	139(28.2%)	21.247 (4)***
용기없음	69(29.2%)	90(35.0%)	159(32.3%)	
피해우려	52(22.0%)	53(20.6%)	105(21.3%)	
도움방법을 모름	28(11.9%)	48(18.7%)	76(15.4%)	
기타	2(0.8%)	12(4.7%)	14(2.8%)	
N(%)	236(100.0%)	257(100.0%)	493(100.0%)	

*p<.05, **p<.01, ***p<.001

2.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공감의 차이분석

가.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

가설 1-1. 중학생의 공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별에 따른 공감에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표 IV-3에 제시하였다.

표 IV-3.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

(N=665)

변수	남 (n=333)	여 (n=332)	t
	M(SD)	M(SD)	
공감	3.06(.37)	3.30(.35)	-8.588***
관점 취하기	3.13(.51)	3.28(.61)	-3.411**
동일시	3.12(.62)	3.43(.66)	-6.283***
공감적 관심	3.17(.44)	3.43(.40)	-8.074***
개인적 고통	2.82(.57)	3.05(.57)	-5.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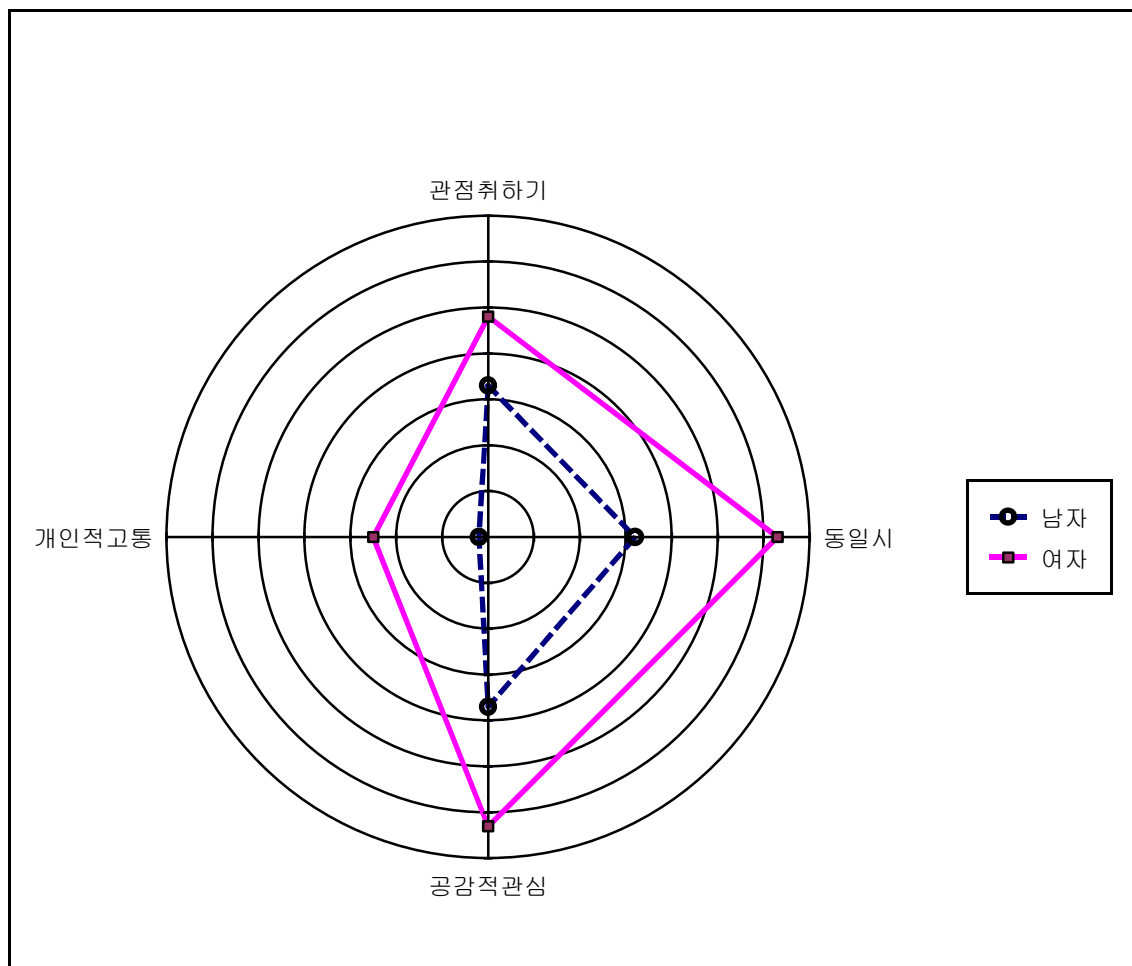
*p<.05, **p<.01, ***p<.001

성별에 따른 공감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8.588$ $p<.001$). 여학생 ($M=3.30$, $SD=.35$)은 남학생($M=3.06$, $SD=.37$)보다 공감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관점 취하기에서는 여학생($M=3.28$, $SD=.61$)이 남학생($M=3.13$, $SD=.51$)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3.411$, $p<.01$). 동

일시에서도 여학생(M=3.43, SD=.61)이 남학생(M=3.12, SD=.6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293, p<.001$). 공감적 관심에서도 여학생(M=3.43, SD=.40)이 남학생(M=3.17, SD=.4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8.074, p<.001$). 마지막으로 개인적 고통에서도 여학생(M=3.05, SD=.57)이 남학생(M=2.82, SD=.57)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5.302, p<.001$).

또한 공감 하위영역 평균 점수를 비교했을 때, 남학생은 공감적 관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개인적 고통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여학생은 공감적 관심과 동일시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개인적 고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남녀 모두 공감 하위 영역 중 개인적 고통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IV-1.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



나.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공감의 차이

가설 1-2. 중학생의 공감은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공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ANOVA)을 시행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4와 표 IV-5와 같다.

표 IV-4.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공감의 차이

(N=665)

변수	강화자 (n =66)	방관자 (n = 416)	방어자 (n =183)	F
	M(SD)	M(SD)	M(SD)	
공감	2.96(.47)	3.19(.38)	3.23(.29)	13.638***
관점 취하기	2.93(.60)	3.14(.54)	3.47(.53)	33.662***
동일시	2.95(.67)	3.32(.66)	3.29(.60)	16.391***
공감적 관심	3.06(.54)	3.29(.44)	3.40(.34)	12.022***
개인적 고통	2.90(.69)	3.01(.57)	2.77(.51)	9.172***

*p<.05, **p<.01, ***p<.001

검증 결과, 공감의 총점에서 방어자(M=3.23, SD=.29), 방관자(M=3.19, SD=.38), 강화자(M=2.96, SD=.4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13.638, p<.001).

표 IV-5.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공감의 다중비교

(N=665)

종속변수	주변또래역할(I) 주변또래역할(J)		평균차(I-J)	표준오차
공감	방어자	강화자	.27*	.05
	방어자	방관자	.04	.03
	방관자	강화자	.23*	.04
관점 취하기	방어자	강화자	.55*	.07
	방어자	방관자	.33*	.04
	방관자	강화자	.23*	.07
동일시	방어자	강화자	.33*	.09
	방어자	방관자	-0.3	.05
	방관자	강화자	.37*	.05
공감적 관심	방어자	강화자	.34*	.06
	방어자	방관자	.12*	.04
	방관자	강화자	.23*	.06
개인적 고통	방어자	강화자	-.13	.08
	방어자	방관자	-.24*	.05
	방관자	강화자	.1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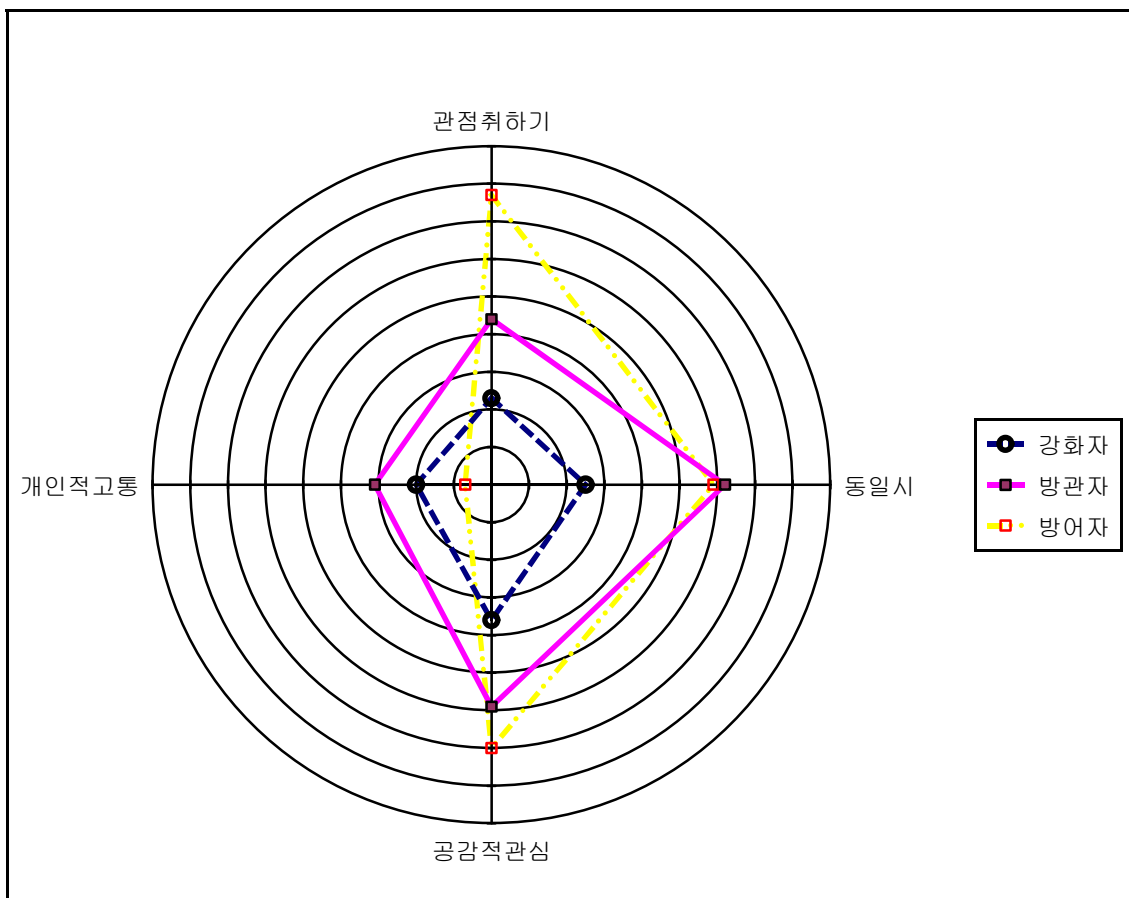
*p<.05, **p<.01, ***p<.001

다중비교 결과, 공감 총점에서 방어자-강화자 집단(.27)과 방관자-강화자(.23)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공감 하위영역인 관점 취하기에서는 방어자-

강화자 집단(.55), 방어자-방관자 집단(.33), 방관자-강화자 집단(.23)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동일시에서는 방어자-강화자 집단(.33), 방관자-강화자 집단(.37)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특이한 점은 이 변수에서 방관자($M=3.32$, $SD=.66$)가 방어자($M:3.29$, $SD: .60$)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 > .05$). 공감적 관심에서는 방어자-강화자 집단(.34), 방어자-방관자 집단(.12), 방관자-강화자 집단(.23)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개인적 고통에서는 방어자-방관자 집단(-.23)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 변수는 방관자가 방어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이다.

그리고 그림 IV-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어자, 방관자, 강화자 모두 공감의 하위 영역 중 정서적 공감에 해당하는 개인적 고통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공감의 차이



3.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분석

가.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

가설 2-1. 중학생의 자아분화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가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표 IV-6에 제시하였다.

표 IV-6.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

(N=665)

변수	남	여	t
	(n=333)	(n=332)	
	M(SD)	M(SD)	
자아분화	2.95(.39)	2.91(.43)	.934*
인지대정서	2.97(.54)	2.94(.56)	.609
자아통합	2.41(.45)	2.40(.45)	.185
가족투사과정	3.24(.62)	3.32(.62)	-1.647
정서적 단절	3.20(.57)	3.10(.66)	1.959**
가족퇴행	2.92(.56)	2.86(.58)	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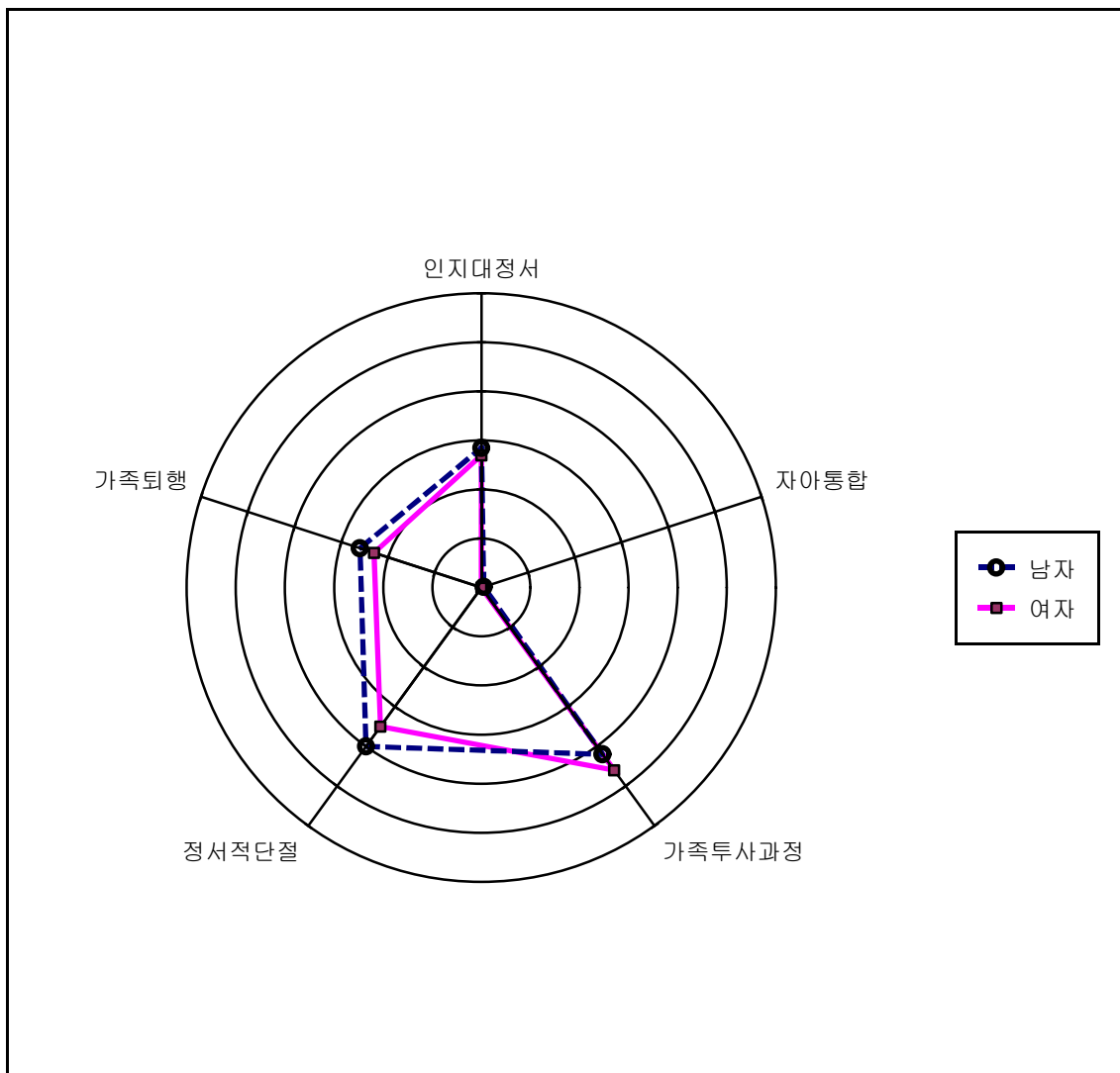
*p<.05, **p<.01, ***p<.001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934$ $p<.05$). 남학생 ($M=2.95$, $SD=.39$)은 여학생($M=2.91$, $SD=.43$)보다 자아분화가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가족투사과정을 제외한 인지대 정서, 자아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변수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위 영역에서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인지대정서, 가족퇴행, 자아분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단절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t=1.959, p<.01$).

또한 그림 IV-3에서와 같이 중학생 남녀 모두 자아분화 하위 수준이 균형적인 점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남녀 모두 가족투사과정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자아통합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나가기 위해 적절하게 부모의 투사에 대한 영향이 적어지고, 자아통합의 점수가 낮은 것은 동조현상이 높은 이 시기에 자신의 신념이나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IV-3.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



나.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

가설 2-2. 중학생의 자아분화는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자아분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7과 표 IV-8과 같다.

표 IV-7.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

(N=665)

변수	강화자 (n =66)	방관자 (n = 416)	방어자 (n =183)	F
	M(SD)	M(SD)	M(SD)	
자아분화	2.76(.48)	2.90(.40)	3.06(.37)	15.769***
인지대정서	2.77(.66)	2.94(.54)	3.08(.50)	9.058***
자아통합	2.22(.53)	2.39(.44)	2.51(.43)	10.858***
가족투사과정	3.04(.67)	3.28(.61)	3.36(.63)	6.326**
정서적 단절	2.97(.66)	3.12(.61)	3.29(.50)	7.918***
가족퇴행	2.79(.64)	2.84(.56)	3.05(.55)	9.784***

*p<.05, **p<.01, ***p<.001

주변또래역할(강화자, 방관자, 방어자)에 따라 자아분화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결과, 방어자(M:3.06, SD:.37), 방관자(M:2.09, SD:.40), 강화자(M:2.76, SD:.48)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5.769, p<.001).

자아분화 하위 영역인 인지대 정서(F:9.058, p<.001), 자아통합(F:10.858, p<.001), 가족투사과정(F:6.326, p<.01), 정서적 단절(F:7.918, p<.001), 가족퇴행(F:9.784,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8.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자아분화의 다중비교

(N=665)

종속변수	주변또래역할(I) 주변또래역할(J)		평균차(I-J)	표준오차
자아분화	방어자	강화자	.30*	.05
	방어자	방관자	.15*	.03
	방관자	강화자	.14*	.05
인지대정서	방어자	강화자	.31*	.08
	방어자	방관자	.14*	.05
	방관자	강화자	.17	.07
자아통합	방어자	강화자	.29*	.06
	방어자	방관자	.12*	.04
	방관자	강화자	.16*	.06
가족투사과정	방어자	강화자	.32*	.89
	방어자	방관자	.07	.05
	방관자	강화자	.24*	.08
정서적단절	방어자	강화자	.31*	.09
	방어자	방관자	.17*	.05
	방관자	강화자	.14*	.08
가족퇴행	방어자	강화자	.26*	.08
	방어자	방관자	.21*	.05
	방관자	강화자	.05	.08

*p<.05, **p<.01, ***p<.001

다중비교 결과, 자아분화에서 방어자-강화자 집단(.30), 방어자-방관자 집단(.15), 방관자-강화자 집단(.14)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하위 영역에서 인지대 정서에서는 방어자-강화자 집단(.31), 방어자-방관자 집단(.14)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자아통합에서는 방어자-강화자 집단(.29), 방어자-방관자 집단(.12), 방관자-강화자 집단(.16)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가족투사과정에서는 방어자-강화자 집단(.32), 방관자-강화자 집단(.24)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저서적 단절에서는 방어자-강화자 집단(.31), 방어자-방관자 집단(.17), 방관자-강화자 집단(.14)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족퇴행에서는 방어자-강화자 집단(.26), 방어자-방관자 집단(.21)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그림 IV-4.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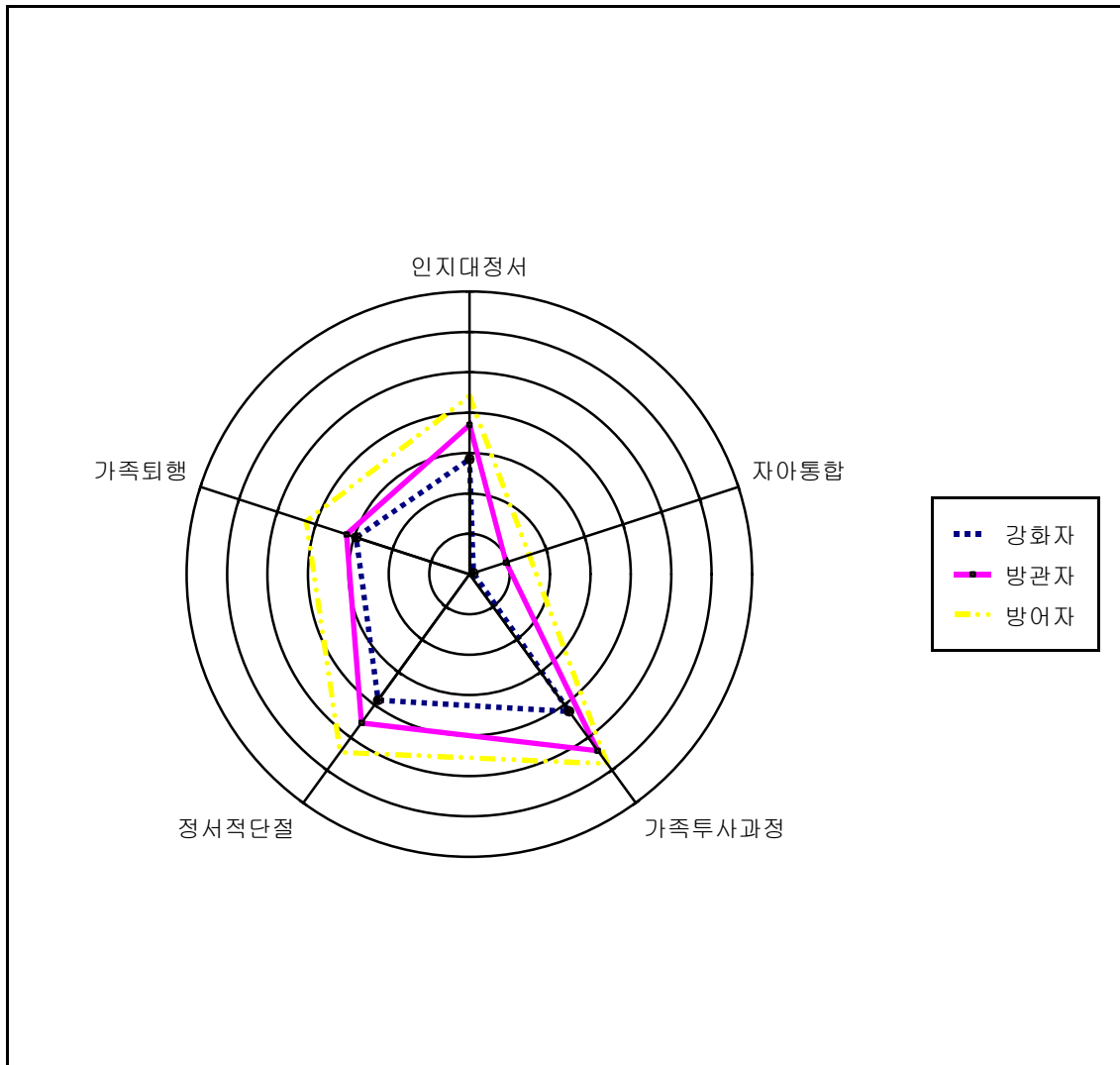


그림 IV-4를 살펴보면, 자아분화 모든 하위 영역에서 방어자, 방관자, 강화자 순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 차이에서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하위 영역 차이에서도 가족투사과정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자아통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족투사과정이 높게 나타남과 자아통합이 낮은 점수는 초기 청소년 시기에 가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여 독립된 자아로 나아가려고 함과 또래관계 및 동조현상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지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초기 청소년 시기의 발달적 특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4. 성별 및 주변포래역할에 따른 가족체계의 차이분석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전체 연구대상자(N=665)의 가족체계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9. 연구대상자의 가족체계의 평균·표준편차

(N=665)

변인	하위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가족체계	가족응집성	3.42	.68
	가족적응성	3.27	.55
	가족체계유형	3.34	.58

표 IV-10. 연구대상자 가족체계 집단분류별 분포

구분		집단 분류 분포			
분류방법		최하점수 ~(M-SD)	(M-SD)~M	M~(M+ SD)	(M+ SD) ~최상점수
가족 응집성 수준	수준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연결
	점수	1~2.63	2.64~3.3	3.4~4	4.1~5
	빈도(%)	71(11%)	246(37%)	204(31%)	144(21%)
가족 적응성 수준	수준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
	점수	1.3~2.6	2.7~3.2	3.3~3.82	3.83~5
	빈도(%)	82(12%)	252(38%)	225(34%)	106(16%)
가족 체계 유형	유형	극단	중간	약간균형	균형
	점수	1.15~2.70	2.75~3.33	3.35~3.90	3.95~5
	빈도(%)	85(13%)	244(37%)	230(34%)	106(16%)

※ M: 평균, SD: 표준편차

그림 IV-5. 연구대상자 가족체계 집단분류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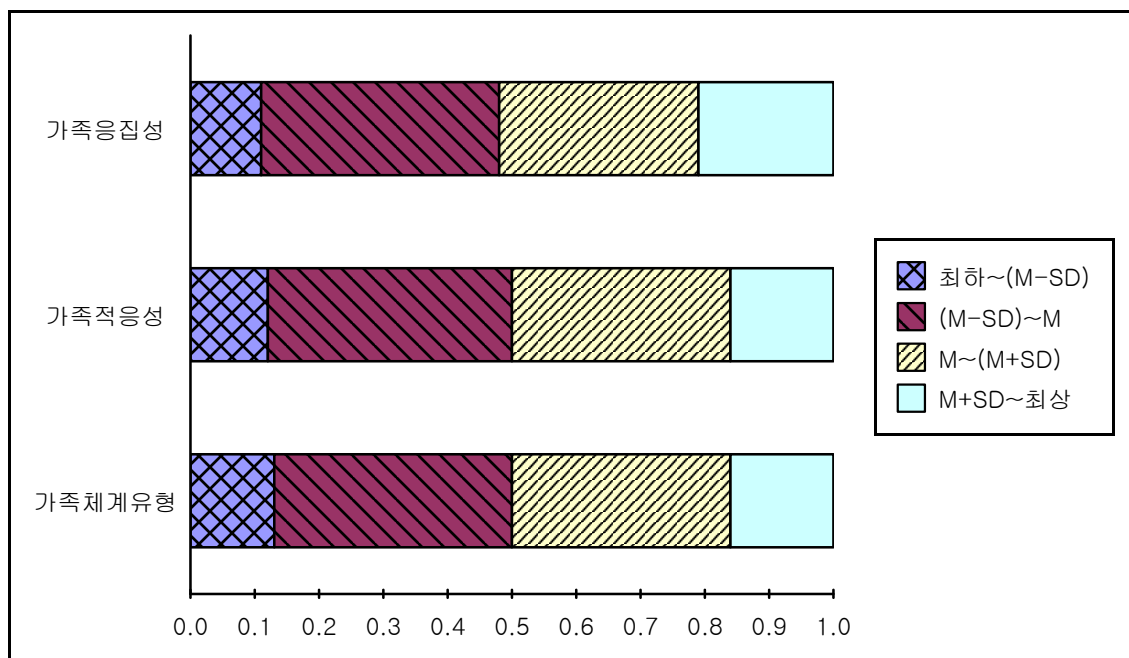


표 IV-9, 표 IV-10, 그림 IV-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를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의 평균이 3.42, 가족적응성의 평균이 3.27, 가족체계유형의 평균은 3.34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가족응집성의 평균이 가족적응성의 평균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Olson 등(1992)이 제시한 분류방법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들은 가족응집성 수준은 분리-연결 집단, 가족적응성 수준은 구조적-융통적 집단, 가족체계유형에서는 중간-약간 균형집단에 60%이상 분포되어 있었다.

가. 성별에 따른 가족체계의 차이

가설 3-1. 중학생의 가족체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별에 따른 가족체계가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표 IV-11에 제시하였다.

표 IV-11. 성별에 따른 가족체계의 차이

(N=665)

변인	남	여	t
	(n=333)	(n=332)	
	M(SD)	M(SD)	
가족체계	3.31(.56)	3.38(.61)	-1.749
가족응집성	3.40(.65)	3.42(.70)	-.481
가족적응성	3.21(.52)	3.34(.57)	-3.165**
가족체계유형	3.31(.56)	3.38(.61)	-1.749

*p<.05, **p<.01, ***p<.001

성별에 따른 가족체계의 총점은 여학생(M=3.38, SD=.61)이 남학생(M=3.31, SD=.5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749, p > .05$).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에서 여학생(M=3.42, SD=.70)이 남학생(M=3.40, SD=.65)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481, p > .05$). 가족적응성에서는 여학생(M=3.34, SD=.57)이 남학생(M=3.21, SD=.52)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3.165, p < .01$). 마지막으로 가족체계유형에서는 여학생(M=3.38, SD=.61)이 남학생(M=3.31, SD=.56)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t=-1.749, p > .05$).

Olson에 의한 집단분류에 의하면, 가족응집성 수준에서 여학생(M=3.42, SD=.70), 남학생(M=3.40, SD=.65)모두 연결집단에 해당하며, 가족적응성 수준에서는 여학생(M=3.34, SD=.57)은 융통적 집단, 남학생(M=3.21, SD=.52)은 구조적 집단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체계유형에서는 여학생(M=3.38, SD=.61)이 약간 균형집단, 남학생(M=3.31, SD=.56)은 중간집단에 분류된다고 해석된다.

나.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가족체계의 차이

가설 3-2. 중학생의 가족체계는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가족체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IV-12와 표 IV-13과 같다.

표 IV-12.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가족체계의 차이

(N=665)

변수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	F
	(n=66)	(n=416)	(n=183)	
	M(SD)	M(SD)	M(SD)	
가족체계	3.13(.58)	3.28(.55)	3.55(.60)	18.356***
가족응집성	3.20(.66)	3.35(.66)	3.66(.67)	17.923***
가족적응성	3.11(.54)	3.22(.51)	3.45(.60)	15.295***
가족체계유형	3.13(.58)	3.28(.55)	3.55(.60)	18.356***

*p<.05, **p<.01, ***p<.001

검증결과, 가족체계에서 방어자(M=3.55, SD=.60), 방관자(M=3.28, SD=.55), 강화자(M=3.13, SD=.58)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18.356, p<.001).

하위영역인 가족응집성에서 방어자(M=3.66, SD=.67), 방관자(M=3.35, SD=.66), 강화자(M=3.20, SD=.66)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17.923, p<.001). 가족적응성에서도 방어자(M=3.45, SD=.60), 방관자

(M=3.22, SD=.51), 강화자(M=3.11, SD=.54)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15.295, p<.001). 가족체계유형에서도 방어자(M=3.55, SD=.60), 방관자(M=3.28, SD=.55), 강화자(M=3.13, SD=.58)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18.356, p<.001).

Olson에 의한 집단분류에 의하면, 가족응집성에서 방어자(M=3.66, SD=.67)집단은 연결집단에 해당하며, 방관자(M=3.35, SD=.66), 강화자(M=3.20, SD=.66)집단은 분리집단에 해석된다. 가족적응성에서 방어자(M=3.45, SD=.60) 집단은 융통적 집단에 해당하며, 방관자(M=3.22, SD=.51), 강화자(M=3.11, SD=.54)집단은 구조적 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체계유형에서는 방어자(M=3.55, SD=.60)집단은 약간 균형집단으로 해석되고, 방관자(M=3.28, SD=.55), 강화자(M=3.13, SD=.58)집단은 중간집단으로 해석되었다.

표 IV-13.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가족체계 다중비교

(N=665)

종속변수	주변또래역할(I) 주변또래역할(J)		평균차(I-J)	표준오차
가족응집성	방어자	강화자	.46*	.09
	방어자	방관자	.31*	.06
	방관자	강화자	.14	.09
가족적응성	방어자	강화자	.34*	.08
	방어자	방관자	.23*	.05
	방관자	강화자	.11	.07
가족체계유형	방어자	강화자	.40*	.08
	방어자	방관자	.27*	.05
	방관자	강화자	.13	.08

*p<.05, **p<.01, ***p<.001

사후검증(Scheffe)결과, 가족응집성에서 방어자-강화자 집단(.46), 방어자-방관자 집단(.31)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가족적응성에서도 방어자-강화자 집단(.34), 방어자-방관자 집단(.23)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가족체계유형에서도 방어자-강화자 집단(.40), 방어자-방관자 집단(.27)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권미영(1993) 연구에서 자신의 가족기능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이 그렇지 못한 대학생보다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해 있다는 연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주변또래 역할 간에는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방어자 집단의 중학생들이 방관자 또는 강화자 집단의 중학생보다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가족응집 및 적응성, 유형체계가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러한 가족 환경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사고가 더 발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방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 양상을 살펴보고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가 성별과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괴롭힘 양상 및 성별의 차이에 대해 χ^2 검증 결과, 또래 괴롭힘을 목격하는 비율이 75.3% 이상이 또래 괴롭힘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또래 괴롭힘을 목격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또래 괴롭힘 유형 중에서도 신체적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관계적 괴롭힘은 여학생이 더 많이 목격하거나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자 역할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남학생 집단이 높았고, 여학생은 방관자 역할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Salmivalli, C., & Voeten, M.(2004)연구에서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할유형 조사 결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방관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방어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한 비율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와 이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Smith와 Sharp(1994)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괴롭힘 유형은 관계적 괴롭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미정(2006), 임재연(2013) 연구에서는 성차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 유형 및 주변또래역할에 대한 성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심희옥(2008), 김지은(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중학생들의 공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정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공감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공감 관련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부분들이다(이경주, 2002; 오민식, 2012; 김지은, 2012).

이경주(2002)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여학생의 공감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공감 하위 영역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서

본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김지은(2012)연구에서 공감 하위영역인 동일시와 개인적 고통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관점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는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공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인 관점취하기, 동일시, 개인적 고통, 공감적 관심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여자의 경우는 거세불안이 없기 때문에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자아와 초자아의 발달이 약하며 이 결과 남성보다 더 감정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이경주, 2002). 즉,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피해자를 목격했을 때, 피해자의 생각과 정서에 대한 이해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방관자의 역할에 더 많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또래 괴롭힘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부정적 정서가 조절되지 않고, 압도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중학생들의 공감이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Scheffe)을 한 결과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하위 영역 중 동일시에서 방관자가 방어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개인적 고통에서는 방어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김지은(2012)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 이 연구에서는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 간 동일시와 개인적 고통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서미정(2008)의 연구, 김혜리와 이진혜(2006)연구에서 방어자의 공감 능력이나 마음읽기 수준이 가해자의 공감능력과 마음읽기 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부분에서 방어자의 공감 수준이 다른 주변또래역할을 하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중학생들의 공감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서 개인적 고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바, 공감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서적 공감 중 개인적 고통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공감 영역에서 균형적인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학생들의 자아분화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정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분화수준이 더 높다(이현주, 1998; 김경자, 2003)는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은실(2014) 연구에서 중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분화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높은 자아분화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권미영, 1993)는 선행연구와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분화수준에서 하위요인간의 차는 유의하지만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은주(2001)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권미영(1993) 연구에서의 청소년(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표집대상 전체 평균은 본 연구 대상자의 분화수준과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자아분화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가족투사과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들이나 부모로부터 투사의 대상으로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정서적 단절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특정 긴장이나 불안에 대한 탓을 부모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섯째, 중학생들의 자아분화가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Scheffe)을 한 결과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심혜숙과 정경연(2007)연구에서 자아분화가 또래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남정미(2008)연구에서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친구 문제에 좀 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인관계에서도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냉담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여 정서적으로 융합을 이루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도움행동을 하는 방어자 역할 간에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미예(2008)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원칙 지향적 목표 지향적 삶을 살며, 타인의 가치와 신념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자기 가치와 신념을 견지해 나감으로써 자기 통제력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방어자가 방관자와 강화자에 비해 자아분화수준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동조현상에 가장 영향을 받을 발달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 자기 가치와 신념을 견지하고 타인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여 방어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는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정경연, 심혜숙, 2007; 최소영, 2007)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중학생들의 가족체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정한 결과 성별에 따라 가족응집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족적응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이미현(2005)연구에서 가족기능에서는 남녀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체계 전체 점수 및 가족적응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김진희(198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가족성원들의 가족체계를 더 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중학생들의 가족체계가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Scheffe)을 한 결과 주변또래역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방어자 집단의 가족체계가 방관자 및 강화자 집단의 가족체계보다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이문행(1994), 홍현화(1997), 허주연(2005)연구에서 가족체계가 기능적일수록 자녀가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과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방어자 역할을 하는 집단일수록 가족체계가 기능적이며, 이는 주변또래역할에서 피해자를 도움행동을 할 수 있는 방어자 집단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상황이 집단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주변또래역할에 주목하여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를 중심으로 성별과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차이를 밝혔다.

본 연구에서 밝힌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학생들의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의 차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또래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진행 시 성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또래역할의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 비율과 공감 수준을 바탕으로,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기 개입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자아분화와 가족체계의 차이 결과는 우리 학생들의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뿐 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기능과 역할도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또래 괴롭힘 연구에서 주된 연구대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목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주변또래역할행동을 하는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에 대해 주목하였다.

둘째, 기존의 또래 괴롭힘 연구에서 주된 연구주체가 방관자 및 방어자들의 개인적인 변인(공감, 마음읽기, 도덕적 추론, 규범인식 등)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 역동성에 영향을 받는 자아분화와 가족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공감에 대한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방관자 집단이 방어자 집단보다 공감의 하위 변인인 동일시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던 점과 중학생 집단 공감의 하위 영역 중 개인적 고통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상기할 때, 또래 괴롭힘을 감소하기 위해 ‘공감’ 요소는 매우 필요한 요소이며, 방관자 집단의 방어수준을 고려했을 때,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공감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공감 하위 영역이 골고루 증진될 수 있도록 정서적 공감에 해당하는 개인적 고통에 관한 요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넷째, 자아분화와 가족체계 역시 성별 및 주변또래역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또래 괴롭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협력과 도움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체계이론 관점에서 개인적인 심리특성들은 가족이라는 1차 환경에서 가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변인과 관련된 연구는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 특히 또래 괴롭힘 현상에서 친사회적인 도움행동을 하는 방어자를 연구함으로써, 방관자 및 강화자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또래 괴롭힘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정에서 자기보고식 도구만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었다는 데 한계가 있다.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선택할 지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의식하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유의 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또한 자료 수집을 남녀공학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남학교와 여학교에서의 집단 역동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학교와 여학교 역시 분석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대상의 연령을 중학교 2학년만 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공감, 자아분화, 가족응집성의 발달적 양상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후속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부터 후기 청소년기의 심리적, 가족 변인 양상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은경. (2007). 집단과정으로서의 왕따 : 왕따 참여자 역할에 따른 사회적 지능과 공감능력의 차이 : 공격행동, 사회적 능력, 공감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강진령 편역. (1997). APA 논문작성법. 서울:양서원.
- 곽은정. (1998). 공감 훈련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고경애. (2007). 가족기능과 가족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서울.
- 권미영. (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김경복. (2005). 부자유친성정, 자아분화수준, 세대 간 친밀감 및 세대 간 융합과의 관계 : 일반학생과 중도탈락학생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김경아. (2011).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 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능력 및 아동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김민경. (2003). 가족체계유형과 자아분화 및 진로결정간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 김연화, 한세영. (2011). 아동의 또래 괴롭힘 참여 유형의 관별 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32(1), 19-41.
- 김은아, 이승연. (2011). 남녀 중학생의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과 공감, 자기효능감, 학급규준에 대한 믿음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59-77.
- 김정택, 심혜숙. (1992). Murray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모델. 인간이해, 13, 33-46.
- 김지은. (2012).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역할에 따른 청소년의 공감, 친사회적 도덕추론, 집단규범 인식의 차이.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유열 외 16명. (제작자). (2014. 3. 3). EBS 다큐프라임 : 교육혁명 - 15세에 주목하라. 서울: 교육문화방송
- 남정미. (2006).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스트레스 수준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남연희. (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청소년 대인관계 성향 간의 관계분석**.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노명희, 박상희.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9(3), 107-127.
- 류경희. (2006). 청소년 집단 따돌림에서 동조 행동의 영향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4(12), 139-154.
- 맹영임. (2001).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 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 박성희. (1996). 공감의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이 관계 연구. **교육학 연구**, 35(5), 143-166.
- 박유화. (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박지영. (1995).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박혜경. (2000). **집단괴롭힘의 전개과정과 역할 구조에 관한 연구 : 중학생들의 집단괴롭힘 사례를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박혜선. (2011). **아동의 자아분화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박혜원. (2002). **공감훈련이 여중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배미예. (2008).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문제 및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배옥현, 홍상욱. (2008). 대학생의 자아분화 정도가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1), 27-34.
- 배은경. (2011).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자아 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 3(1), 85-100.
- 백지현. (2010). **남녀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 유형에 따른 인지적·정서적·사회적 특성**.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서미정. (2006). **또래 괴롭힘 완화요인의 탐색 : 주변또래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 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 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성태제. (2007). **알기 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 성태제. (2007).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교육과학사.
- 손갑주. (2005). **또래 괴롭힘에 대한 아동의 방관자적 태동에 관한 분석**.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송경희.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 :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송경희, 이승연.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 :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05-124.
- 송미경. (2010).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수준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신나민. (2012). 청소년 또래 괴롭힘의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공감 구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25-45.
- 심혜숙, 정경연(2007). 아동의 자아분화가 불안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1), 285-297.
- 심희옥. (2005). 또래 괴롭힘과 대인 간 행동 특성에 관한 횡단 및 단기종단연구 : 참여자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263-279.
- 심희옥. (2007). 또래 괴롭힘과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횡단 및 종단 연구 :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6(6), 1107-1118.
- 심희옥. (2008).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정서에 관한 연구 : 성별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3), 191-205.
- 안경숙. (2006). **대학생들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서울.
- 오민식. (2012). **중학생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과 공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오인수. (2009). 스트레스와 학교 괴롭힘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과 공격성의

-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2(2), 49-70.
- 오인수. (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1), 45-63.
- 오지원. (2013). **학급 공동체의식이 집단 따돌림 관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주변인 유형(방관자, 가해동조자, 피해자 방어자)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우수명. (2010). **마우스로 잡는 PASW 18.0**. 인간과 복지
- 윤선미. (2010). **자아분화수준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기.
- 윤성우. (2004). **집단 따돌림 방관자에 대한 또래지지프로그램의 효과**.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서울.
- 윤정연. (2001).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성향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이경주. (2002). **청소년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이문행. (1994).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이미숙. (2005).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이민수. (2000). **가족응집력과 자아분화가 공감과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이상길. (2004).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일반계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35-448.
- 이소연. (2003). **가족응집성과 적응성과 진로 의사결정과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이신숙, 차용은(2000). **성인자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이 노모와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4), 21-32.
- 이옥경. (2002). **과제의 특성에 따른 유아와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관계**.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영희. (2005). **공감 훈련이 중학생의 공감 능력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이은경. (2011). **개인과 가족차원의 보호요인이 또래 괴롭힘 피해 청소년의 적응도 변화 경로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이은희. (2009). 학교요인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중학생의 등교공포와 교내 폭력의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3), 281-304.
- 이익섭, 최정아. (2008).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학교부적응 간의 경로분석 : 우울 및 공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6(1), 47-58.
- 이종승. (2011). **교육·심리·사회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이희경. (2001). 공감수준과 친소관계가 따돌림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5(3), 281-297.
- 임재연. (2013). 또래 괴롭힘 참여역할에 따른 긍정적 강점의 차이 : 또래 괴롭힘 예방을 위한 피해방어자의 긍정적 강점. **학교사회복지**, 24, 131-151.
- 전귀연, 최보가.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 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전귀연, 최보가. (1995).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99-113.
- 정경연. (2007). **부모 및 자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정경연, 심혜숙. (2007). 부모자아분화와 아동자아분화 및 세대 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8(6), 119-138.
- 정연호. (2004). **부모-청소년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익중, 박현선, 구인희.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3, 223-224.
- 정희준. (1995). **가족의 가치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 Boew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2013). **제주교육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차윤희. (2005).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학령기 아동의 역할과 사회적 이해**.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2008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2009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2011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서울 : 청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 서울 : 청재단.
- 최소영. (2007). **자아분화와 가족 간 의사소통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서울.
- 최연실, 김현영. (2005).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1, 1-17.
-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조사 참여율 제고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한명수. (2000).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한정아. (2005).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한정아, 심홍섭. (2005). 대학생의 자아분화,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 17(4), 965-981.
- 한상분. (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허주연. (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체계가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홍현화. (1997).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 Bowen, M.(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Tork : Jason Aronson.
- Bowen, M.(1976). *Theory in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Guerin(Ed).

-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en.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onson Aronson.
- Bloch, D. A.,& Laperrire, K. (1973). *Techniques of therapy : A conceptual frame*. In D. A Bloch(Ed). *Techniques of family psychotherapy : A primer*, New York : Grune & Stratton.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n*y L J. Aronson.
- Davis, M. 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p.85.
- Davis, M. H.(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Feshbach, N, D.(1978). *Studies of empathic behavior in children*. In Maher, B.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8*, New York : Academic Press.
- Gini, G., Albiero, P., Benelli, B., & Altoe, G.(2008). Determinations of adolescent's active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ce*, 31, 93-105.
- Kerr, M. E & Bowenm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 W.W. Norton & Company.
- Kerr, M. E & Bowenm M. (1988).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Family Evaluation>,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역(2005). 학지사.
- Minuchin, S. (1974). *Family and Family Therapy*. Boston : Harvard University, University Press.
- Nichols M. P. & Schwatz, R. C. (2001). *Family Therapy : Concepts and method(5th ed.)*. Boston : Allyn & Bacon.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 Olson, D. H. (2000).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Journal*

- of Family Therapy*, 22(1), 147-164.
- Olson, D. H., Russell, C., & Sprenkle D.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 IV.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22, 69-83.
- Olson, D. H., Russell, C., & Sprenkle D.H.(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6, 3-28.
- Pellegrini, A. D., & Bartini, M.(2000). A longitudinal study of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er affilia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to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Fall*, 37(3), 699-725.
- Pozzoli, T., & Gini, G. (2010). Active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The rol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peer pressur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6), 815-827.
- Salmivalli, C., & Voten, M.(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 246-258.
- Samivalli, C.,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ine,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 Participant role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 Vidal, J., Bie, J., Granneman, R. A., Wallinga, A. E., Koolhaas, J. M., & Buwalda, B. (2007). Social stress during adolescence in Wistar rats induces social anxiety in adulthood without affecting brain monoaminergic content and activity. *Physiology & Behavior*, 92(5), 824-830.

<Abstract>

The Differe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Empathy,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Systems
Based on the Roles of Bystanders in Bullying Situations

Go, Hyein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eong-bong

This study is aimed to find out whether - in a situation where middle school students are bullied by their peers -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empathy,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systems based on gender and the roles(reinforcers, outsiders, and defenders) of bystanders. In this regard, I established study subjects as follows:

Study Subject 1. Are there any meaningful differences in middle schoolers' empathy based on gender and the roles of bystanders?

Study Subject 2. Are there any meaningful differences in middle schoolers' self-differentiation based on gender and the roles of bystanders?

Study Subject 3. Are there any meaningful differences in family syst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gender and the roles of bystanders?

In order to verify the study subjects mentioned above, I conducted a survey of 665 middle school students in second grade from 3 co-ed middle schools located on Jeju Island, using purposeful sampling.

I drew on the self reporting questionnaire to look into the overall condition, empathy,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systems. Using SPSS Statistic 18, I processed the collected data statistically with several measures, including percentages, averages, standard deviations, χ^2 Verification, t-Verification and analysis of variance(One way-ANOVA).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75% of the subjects who were middle school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had witnessed other students bullied by their peers, it can be expected that a majority of students have experienced a role as bystanders who were present when bullying happened. The percentage of witnessing bullying by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while male students have a higher rate of witnessing or experiencing physical bullying, femal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witness or experience relational bullying.

It is suggested that in bullying situations, male students have a higher tendency to help those who are bullied than female students. In the same situations, many of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play a role as outsiders, but male students showed a higher percentage of playing a role as a defender.

Second,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empathy by gender and the roles of bystanders. For the empathy by gender,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rates in some of the sub areas of empathic abilities such as taking a stance, identifying with the bullied, empathic interest, and individual pains. For the empathy based on the roles of bystanders, defenders have the highest rates in all the areas except for identifying with the bullied, one of sub

domain of empathic abilities, whereas outsiders and reinforcers showed similar percentages. Outsiders were the highest in the identifying area, followed by defenders and reinforcers.

Third,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self-differentiation based on gender and the roles of bystanders. In self-differentiation by gender, male students showed a higher average than females according to descriptive statistics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meaningful outcomes in every area except for the emotional cutoff area. The differences in self-differentiation based on the roles of bystanders appeared to be meaningful. In some sub areas of self-differentiation, including the emotional system diverging from the intellectual one, self-integration, family projection process, emotional cutoff, and family degradation, defenders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followed by outsiders, and reinforcers.

Fourth, in family systems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adaptability, one of the sub areas of family systems, based on gender and the roles of bystanders. While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shown in family cohesion by gender or in type of family systems,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family adaptability. The roles of bystanders appeared to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in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type of family systems.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empathy,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system based on gender and the roles of bystanders. Furtherm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found out family systems and psychological dynamics have indirectly affected the events happening in the relationships among peers and made sure that in order to prevent and settle bullying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roles of not only schools but also families would be very crucial.

부록 목차

부록 I. 공감	95
부록 II. 자아분화	96
부록 III. 가족체계	98
부록 IV. 또래 괴롭힘 전반적인 양상	99
부록 V. 연구대상자 일반사항	100

설문지

안녕하세요?

먼저 설문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중학교 학생들의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의 참여역할, 공감 능력, 자아분화, 가족응집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문항에는 특정한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 행동과 가장 가까운 답을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학문적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지는 경우 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질문을 잘 읽고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자료는 또래의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바람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연구자 고희인(delight0102@hanmail.net)

부록 I.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되는 칸에 √ 표로 해 주세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종종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멍하게 생각해 잠기거나 공상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가끔 내 입장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생각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사람들을 봐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매우 잘 빠져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위급한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영화나 연극을 객관적으로 보는 편이며, 완전히 빠져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매우 감정적 상황에서 가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가끔 내 친구들의 처지에서 상상해 보고,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책이나 영화에 완전히 빠져드는 일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누군가가 다치는 것을 봐도 침착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에 크게 마음이 쓰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확실히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들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영화나 연극을 보고 난 후, 마치 그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된 기분을 느끼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긴장이 흐르는 상황에서 겁을 먹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사람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도 크게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동을 잘 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모든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스스로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좋은 영화를 볼 때, 쉽게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긴급한 상황에서 쉽게 자제력을 잃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잠시라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소설을 읽을 때,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하고 상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부딪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몹시 당황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II. 다음은 자신에 관해서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1~13번까지의 문항은 최근 2년간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으시고 네 가지 중 하나만 골라 √ 표 하시되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말을 후회하는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감정을 비교적 잘 통제해 나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욕을 하고 무엇이든 부수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싸움에 잘 말려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남이 지적할 때보다 내가 틀렸다고 여길 때 의견을 더 잘 바꾼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10. 논쟁이 있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내 말이나 의견이 남의 비판을 받으면 얼른 바꾼다.	①	②	③	④
12. 내 계획이 주위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꾼다.	①	②	③	④
13. 주위의 말을 참작은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신에 따라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14~36번은 현재뿐 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으시고 네 가지 중 하나만 골라 √ 표하시되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근심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내가 미덥지 못해서 지나치게 당부하는 일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16. 우리 부모는 형제들 중 유독 나 때문에 속을 많이 상했다.	①	②	③	④
17. 부모님은 내게만 문제가 없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고 말을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처한 상황은 부모님이 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해 오던 대로이다.	①	②	③	④
19. 내 걱정이나 근심은 옛날 부모님이 내게 말씀하시던 그대로이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면 대단히 불편하리라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21.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부모님 슬하에서 하루 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보다는 안 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왔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과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6.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	①	②	③	④
27. 우리 가족은 심각한 일이 있어도 가족 간에 금은 잘 가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8. 가족 간에 말썽이 있어도 서로 상의해가며 잘 해결해 왔다.	①	②	③	④
29. 우리 가정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	①	②	③	④
30.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님은 차분하게 잘 처리하셨다.	①	②	③	④
31. 우리 가정은 대체적으로 화목하고 단란했던 편이다.	①	②	③	④
32. 우리 가족은 각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준 편이다.	①	②	③	④
33. 나는 어릴 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34. 우리 가족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도 잘 싸웠다.	①	②	③	④
35.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36. 우리 가족들은 서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부록 Ⅲ. 다음은 가족에 관해서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으시고 다섯 가지 중 하나만 골라 √ 표 하시되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서로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들도 자신들에 대한 규율(규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든 가족끼리만 함께 일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식구 중 누구라도 가족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외부사람들보다는 우리 가족끼리가 더 친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상황에 따라 변화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족끼리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가 받는 벌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매우 친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은 의사결정 시 자녀들도 함께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가족은 가족행사가 있을 때, 가족이 모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집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규칙이 바뀔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집안일을 할 때, 식구 모두가 함께 돌아가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할 때, 가족구성원들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가족 중 누가 지도자인지는(주도적 역할) 정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집은 가족의 단합 및 화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집에서는 집안일을 할 때,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IV. 다음은 또래 괴롭힘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생각과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기본적 문항입니다. 연구의 목적으로만 분석되오니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직접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2.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편인가요?	① 아니다. (2-1번으로) ② 그렇다.
2-1.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 학생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별 관심이 없으므로 ②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③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아서 ④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⑤ 기타()
3. 또래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② 나도 언젠가 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③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 ④ 나는 절대 괴롭힘을 당할 리가 없다. ⑤ 기타()
4. 또래 괴롭힘 상황을 본 적이 있나요?	① 전혀 없다. ② 몇 번 본적이 있다. ③ 자주 본다. ④ 거의 항상 주변에서 있는 일이다. ⑤ 기타()
5. 어떤 또래 괴롭힘 상황을 가장 많이 보거나 경험했나요?	① 밀거나 때리는 등의 신체적 폭력 ② 욕이나 심한 말로 말미암은 언어적 폭력 ③ 나쁜 소문을 내고 따돌리는 관계적 폭력 ④ 기타()
6. 어떤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나요?	① 외모 ② 성격 ③ 행동 ④ 성적 ⑤ 기타()
7.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로 어떻게 행동하나요?(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를 고르세요)	① 괴롭힘 상황을 보며 웃거나 주변에서 구경을 한다. ②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위로해주거나 다른 애들이 괴롭힘 행동을 그만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③ 상황을 피하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④ 기타()

부록 V. 다음은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일반적 생활에 대한 문항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 없이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생년월일	년 월
3. 형제순위	○명 중 ○째(예: 3명 중 둘째)
4.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집의 경제사정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② 다소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 사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사는 편이다.
5. 함께 사는 가족(모두 표시해주세요)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자매 ⑥ 그 외 친척(고모, 이모, 삼촌 등) ⑦ 기타()
6. 부모님 학력사항	아버지: 어머니: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2년제 대학교 졸업 ⑤ 4년제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7. 자신의 학업성적은?	① 매우 못하는 편이다. ② 조금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하는 편이다.